

The cover art for 'World of Warcraft: The War Within' features a dramatic scene. In the foreground, a blonde elf woman with purple tribal tattoos on her arms and blue eyes is shown in profile, looking upwards. She wears grey and black armor. In the background, a large, ornate stone structure with a domed roof and golden accents is visible. Several teal-colored humanoid figures stand on a platform in front of the structure, their arms raised in a gesture of praise or devotion. The sky is dark and swirling with purple and blue clouds, with a large, glowing blue and yellow orb in the upper left corner. The overall atmosphere is one of awe and mystery.

WORLD
WARCRAFT®
THE WAR WITHIN™

크아레쉬의 파멸

작가: ADAM CHRISTOPHER

— 1 —
공허로부터의 목소리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CYNTHIA SHEPPARD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CHEUNG TAI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NICHOLAS MCDOWEL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STEPHANIE YOON

제작

BRIANNE MESSINA, ANASTASIYA NALYVAIKO,

TAKAYUKI SHIMBO, VALERIE STONE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곳엔 분명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비극과 공포에서 비롯된 아름다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알레리아 윈드러너는 그러한 복잡한 감상을 마음에서 지워냈다. 텔로그라스 균열 끝자락의 어느 이름 없는 봉우리 위에 선 그녀는, 산산조각 난 세계의 잔해를 휘감는 보랏빛 공허의 격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위해. 위안을 찾기 위해..

오늘 알아낸 정보를 카드가에게 전해 주세요. 전 때가 되면 달라란으로 갈게요.

그 말이 뇌리에 맴돌았다. 회피였다. 책임을 외면하는 말이었다. 지금 이 순간 아제로스를 위협하는 새로운 재앙은 너무도 거대하고, 너무도 추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래, 전령 잘아타스가 오고 있다. 세상은 그 어떤 때보다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리고 알레리아도. 공허를 통해 손에 넣은 힘은 상상도 못 할 정도였지만, 동시에 그 힘은 알레리아를 통해 세상으로 뿔어 나왔다. 어둠은 자신의 일부였고, 자신 또한 어둠의 일부였다. 잘아타스는 그 사실을 알았고, 언젠가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또다시, 알레리아는 이 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제로스는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알레리아는 자신에게도 부를 수 있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잘아타스를

막아낼 수 있을까? 수천 년을 살아남았고, 무수한 세계에 파멸을 선고한 존재를 상대로? 무엇보다 이 순간 알레리아는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조금 전, 잘아타스가 만들어낸 연인 투탈리온의 환영을 본 직후였기에.

도대체 환영의 목적은 무엇일까? *알레리아를 죽이려고?* 아니. 그건 너무 식상하지.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험이리라. 그리고 그 목적은 완벽히 달성됐다. 알레리아는 전령의 계략에 고스란히 말려들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젠 마음 어딘가에 잘아타스가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움텄다.

“마음이 어지러운 듯하군.”

끝없는 허공을 바라보던 알레리아는 고개를 들었다. 공간 방랑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알레리아가 깊고 긴 숨을 내쉬었다.

“공간 방랑자, 나는 *답을 원해*. 당신은 잘아타스가 아제로스를 크아레쉬와 같은 운명으로 이끌려 한다고 했지. 난.....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알아야겠어. 아무리 당신이라고 해도—”

공간 방랑자는 허공에 떠 정지한 채 미동도 않았다. 알레리아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이 스스로 중심을 찾기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알레리아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았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나눈 것도 벌써 몇 번째였던가? 알레리아는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고, 공간 방랑자는 교훈을 깨닫기 전까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너무나 익숙한 수순이었다. 익숙해서 피할 수 없는 순환. 투탈리온의 환영은 알레리아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난 무서워.” 마침내 알레리아가 말했다.시선은 공간 방랑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잘아타스가 두렵고, 과거가 두렵고, 크아레쉬에 일어난 일이 두렵고, 앞으로 아제로스에 닥칠 일이 두려워.” 알레리아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두려워*. 내 안의 공허가. 한때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던 그 힘이.”

“두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공간 방랑자가 말했다. “공허는 끔찍한 것이지. 부정하진 않겠다. 그 공허가 네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네가 살아가며 받아들이 현실이야.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어도 너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지.”

알레리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로스락시온이 울았던 걸지도 몰라,”

알레리아가 속삭였다. “그림자를 마음에 들이면 끝은 광기의 나락이라고.”

그 말에 공간 방랑자가 웃음을 터뜨렸고, 알레리아는 화들짝 놀랐다. 알레리아는 눈을 떠 공간 방랑자의 실체 없는 형체가 뒤로 미끄러지는 걸 보았다. 금빛과 보랏빛으로 빛나는 건갑이 웃음으로 흔들렸다.

“내 고통이 우스워?”

“웃긴 건 말이지, 알레리아.” 공간 방랑자가 봉대로 감긴 얼굴을 기울이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오래전에 들은 로스락시온의 말은 기억하면서, 정작 내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럼 다시 말해 줘. 지금 들을게. 조연은 대한영이야.” 알레리아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다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닥쳐올 재앙이 어떤 건지 알아야 피할 수 있어.”

봉우리 위의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공간 방랑자가 먼저 등을 돌렸다. “따라와라.” 그가 내리막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알레리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로?”

공간 방랑자는 멈추지 않았다.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인데? 시간이 있긴 한 거야?”

그 말에 공간 방랑자는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다만 이 여정이 네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말만 길고 실속은 하나도 없네.”

공간 방랑자가 고개를 고덕였다. “텔로그러스 균열 어딘가에 공허의 명령 하나가 숨어 있다. 위험한 존재고, 반드시 제거해야 해. 하지만 몸을 숨겼지. 사냥은 너한테 치유의 과정이 될 거다. 어쩌면 내게도. 자아를 성찰할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 지금 무너져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을 수도 있을 거고.”

알레리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말은 청산유수지, 공허의 존재를 쫓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야?”

“추적하는 동안 이야기를 하나 들려 주마,” 공간 방랑자가 대답했다.

그 말에 알레리아는 흥미가 동해 한 걸음 다가섰고, 공간 방랑자는 알레리아의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췄다.

“균형에 대한 이야기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 고향 크아레쉬와 그곳에 닥친 파멸에 대한 이야기지.....”



크아레쉬는 아제로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바다로 덮인 푸르고 푸르른 행성도 아니었고, 생명으로 복적이는 땅도 아니었다. 크아레쉬는 모래와 바위, 먼지로 가득한 혹독한 땅이었다. 하지만 또 하나, 무언가가 있었다. 마법이었다. 어쩌면 그 마법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생명은 으레 그렇듯, 어찌어찌 행성에 발을 붙였다. 우리는, 크아레쉬인은 이 거친 세계를 사랑했다. 부족한 것은 만들어 썼다. 생존의 교훈은 곧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고, 수천 년이 흐른 끝에 우리 사회는 거미줄 같은 도시국가들의 연합체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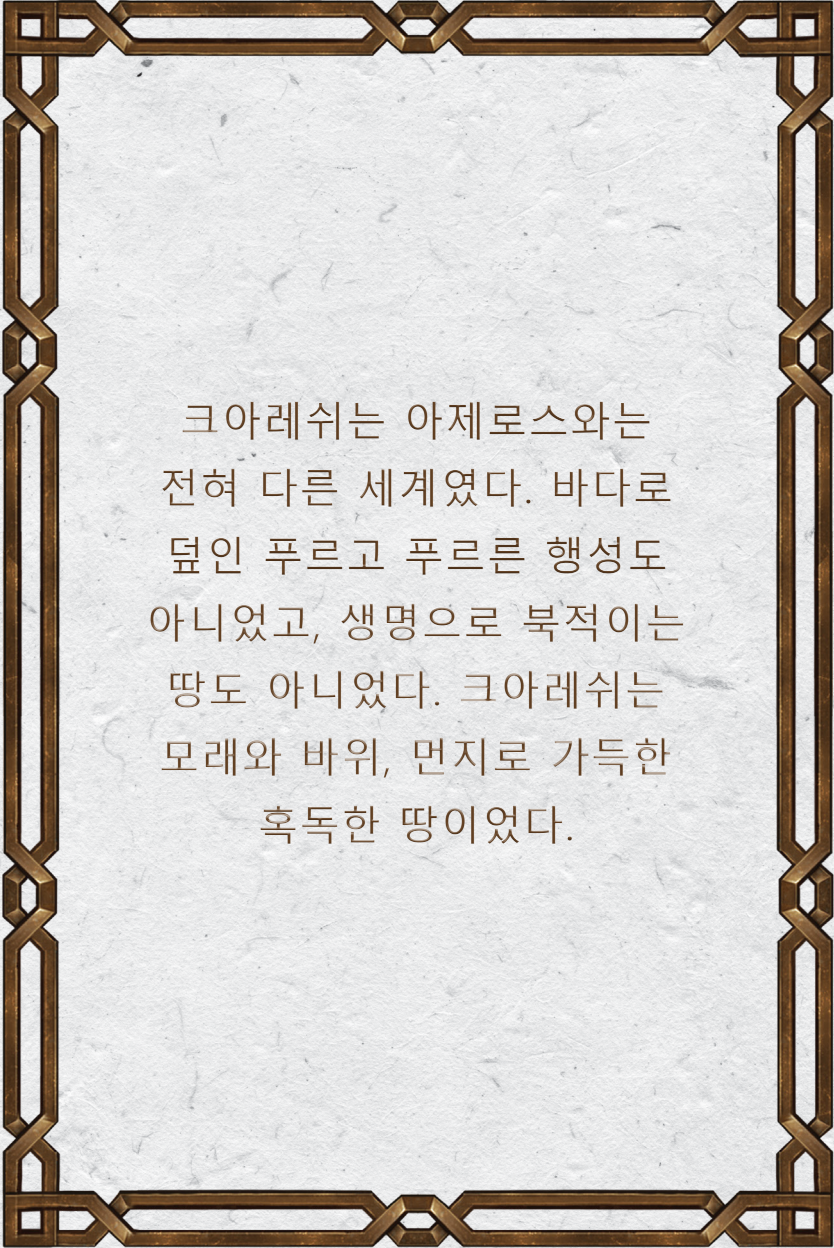
마누사는 나의 고향이었다. 난 마도공학자였다. 명백히 고귀한 계층이었다. 마력의 채취와 전이 연구에 생을 바쳤다. 우리 사회는 서약 위에 세워졌으며, 떠돌이 유목민부터 삶의 전 분야를 인도하는 위대한 예언자들까지 모두 그 서약을 품었다. 서약은 단순히 화려한 약속이 아니었다. 우리를 책무로 잇고, 서로를 잇는 유대였으며, 모든 것의 위에 있는 거룩한 연결고리였다. 서약을 깨는 것은 삶 자체를 버리는 것이며,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죽는 것과 같았다.

각 도시국가에는 통치자가 있었다. 나는 내 지위 덕택에 마누사의 지도자 카이베자와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다만 어떤 부분이든 실질적인 권위는 예언자 평의회에 있었다. 평의회를 이끄는 자는 길들지 않은 자의 대사제 살라다르였다. 처음으로 광휘의 환영이 크아레쉬를 휩쓸었을 때, 나는 그를 찾아가 지혜를 구했다. 끔찍한 저주가 일부 크아레쉬인에게 내렸고, 나 또한 거기에 포함됐을 때, 두려움을 떨치고 연구에 뛰어들었다. 실험실과 관측소 등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상 연구에 집중했다. 자료를 굶어 모아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언자들을 우러러보았다. 이들이 크아레쉬 전체를 이끌듯, 내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리라 믿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지. 예언자 평의회 회합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정치가 얽힌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감은 점점 꺾여갔다. 마침내 살라다르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정리하겠다고 나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듣기 전부터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다.

살라다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좌중이 고요해졌다. 주위를 둘러싼 예언자들은 살라다르의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크아레쉬는 아제로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바다로
덮인 푸르고 푸르른 행성도
아니었고, 생명으로 북적이는
땅도 아니었다. 크아레쉬는
모래와 바위, 먼지로 가득한
흑독한 땅이었다.

이미 난 평의회의 눈 밖에 난 상태였다. 내 연구, 관측 망원경과 등불, 그 외 수많은 장치로 수집한 자료들. 몇 달에 걸쳐 집요하게 정리하고 연계하며 주석까지 달아 정리한 결실. 그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다.

나는 평의회 대표자들 한 명 한 명의 시선을 마주하며 희망이 사그라지는 걸 느꼈다. 살라다르가 있고, 그 옆엔 최측근 영혼필경사가 있었고, 설계사 에트리에스와 그 수하들. 통일성이라고는 없는 집단이었다. 내 연구에 가장 관심이 없던 시련 계파의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기타 부류는 이름만 간신히 아는 정도였다. 다만 단 한 사람..... 도시의 통치자이자 진정한 친구, 카이베자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타자베쉬의 통치자 빌알은 판단을 유보 중인 상태였지만, 카이베자의 말을 곧잘 듣는다는 걸 알았다. 둘은 나란히 앉아 말이 없었다.

그나마 살라다르가 회의를 기존 장소인 타자베쉬가 아닌 카이베자의 도시에서 열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내겐 위안이었다. 드물게도 내 긴급한 요청을 신속히 받아주었고, 사막의 지배자인 영혼필경사의 도움을 받아 황무지를 가로지르며 이곳까지 달려왔다. 수행단을 대동하고 말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지금 내 몰락을 기대하듯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득하고 숨 막히는 침묵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다. 카이베자는 고개를 들어,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지.” 살라다르가 말했다. “지금은 신성 모독을 논할 때이니.”

예언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지혜에 감탄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신성 모독?”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지적인 토론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사라졌다. 가장 무거운 비난을 이토록 가볍게 던지다니. 나는 여름 로브의 자락을 움켜쥐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좌절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세계혼이 보내는 환영은 실재하오. 내가 들었고, 내 자료가 증명하오!” 나는 회의장으로 급히 개조된 조합실의 높은 창문을 가리켰다. “마누사가 들었소!” 나는 탁자를 향해 팔을 활짝 펼쳤다. “당신들도 들었지 않소!”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에트리에스가 말했다. 그녀의 수하들이 미소 지었다. 더 말을 섞어 봐야 무슨 소용이랴. 살라다르가 고개를 끄덕였고,

영혼필경사와 빌알도 그 뒤를 따랐다. 나는 카이베자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선택의 때가 왔다.” 살라다르가 말했다. “더 이상 그대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음이야. 예언자들은 수년 전부터가 그대의..... 공허 탐구를 용인해 주었다. 처음에는 재미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겠지.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한다. 하나 기분 전환에 취해 본분을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서약을 맺었다.” 빌알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자신감이 있었다. “우리 모두 서약을 했고, 각자의 위치와 목적에서 역할을 다했지.” 그가 날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대의 서약은 마도공학자로서 바친 것이다. 크아레쉬의 변영을 위해 마력의 전이와 변환을 연구하는 것. 하지만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대가 제안한 레시 리본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보지 못했다. 그대는 성스러운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공허 마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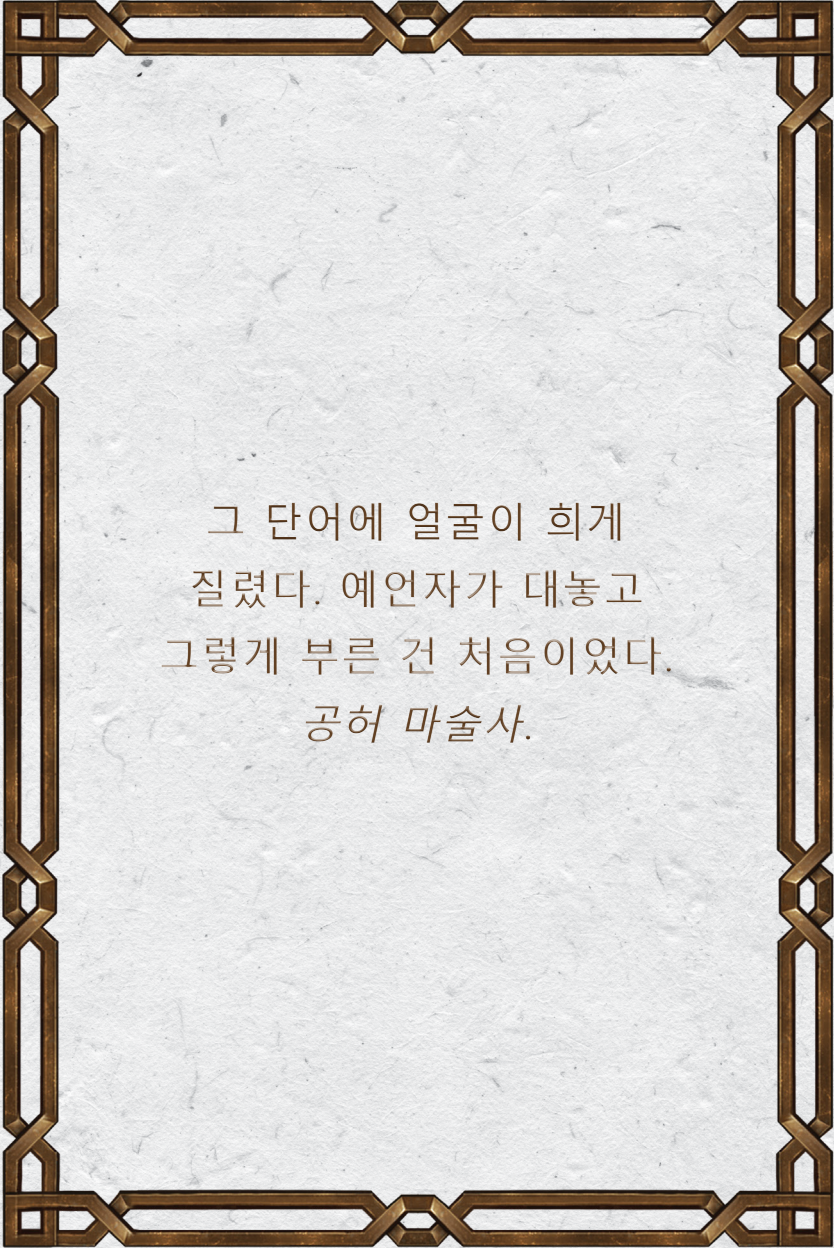
그 단어에 얼굴이 희게 질렸다. 예언자가 대놓고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공허 마술사. 더 모욕적인 말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 호칭만큼 수치스럽게 느껴진 건 없었다. 빌알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연구를 예언자들에게 가져오는 게 옳다고 확신했다. 광휘의 환영은 크아레쉬 세계혼의 절규였다. 이걸 확신했다. 그 근원을 좇아 세계의 심장부까지 추적했으니까. 나는 추상의 영역에 있던 개념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전적으로, 공허의 비밀을 풀기 위한 내 연구 덕분이었다.

나는 거듭 주장해왔다. 내 연구는, 내가 서약으로 맹세한 마력 연구에 있어 필연적인 일부라고.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마력을 이해한다는 건 공허를 포함한 그것의 모든 형태를 이해한다는 뜻이었으니. 예언자들도 한때는 동의했었다..... 적어도 내가 중대한 발견을 하기 전까지는. 수세기 전 크아레쉬 문명이 낳은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레시 리본이 실은 비전 마력을 품고 있다는 걸 밝혀냈을 때, 나는 경탄과 경계를 동시에 받았다. 리본은 마력 변환을 돕는 힘을 지녔으며, 그 비밀을 풀 열쇠만 찾는다면 실로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

레시 리본의 잠재력을 밝혀낸 뒤, 평의회 내에서 내 입지는 상승가도를 달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허에 대한 내 연구가 서약의 틀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들 모른 척 묵인해 주었다.

광휘의 환영 때문에 변하리란 걸 알아야 했는데. 세계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에 얼굴이 희게
질렸다. 예언자가 대놓고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공허 마술사.

나는 내 영역을 벗어나는 셈이 됐고, 평의회는 그런 오만을 절대 묵과하지 않았다.

“그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살라다르가 말했다. “공허 연구를 계속한다면, 자네의 본래 일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결국 서약은 깨지겠지.”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인즉.”

비로소 카이베자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친구가 아닌 예언자 평의회 편에 섰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쓰라렸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대사제가 말했다. “세계혼은 그대의 연구 영역 밖에 있다. 광휘의 환영이 실재한다 해도, 그것은 그 분야에 정통한 자들의 몫. 그대는 본래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공허에 대한 모든 연구를 즉시 중단하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음 만남은 훨씬 더 불쾌한 자리가 될 것이야. 그건 내가 장담하지.”



운명적인 평의회 회의가 끝난 뒤의 시간은 희미한 안개 속 같았다. 평생 사랑해 마지않은 마누사였건만, 그날 나는 거리를 헤매며 어떤 풍경도 눈에 담지 못했다. 발길은 끊임없이 돌아지만 아무 생각 없었다. 살라다르의 최후통첩에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언제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제야 저녁 공기에 실려 퍼지는 마법무용수의 음악을 들었고, 그제야 시간이 꽤나 늦었다는 걸 깨달았다. 피곤에 젖은 몸을 이끌고 시장 광장으로 향했다. 황무지를 지나 영혼필경사의 대상단과 함께 도착한 무용수들이 춤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들을 보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치맛자락이 팽이처럼 휘돌고, 발끝은 벽돌바닥 위로 모래를 훑날렸다. 마법무용수의 전통 무용은 마누사에서 익숙한 풍경이었다. 마누사는 유목민들이 자주 지나치는 길목에 자리한 유서 깊은 쉼터였고, 유목민이 머무는 곳엔 늘 마법무용수가 따라왔다. 관객의 환호 속에서 이들은 춤을 추고, 동료들이 사람들 틈에서 동전을 챙겼다.

나 또한 수년간 많은 동전을 건넸다. 마법무용수의 자유로운 몸짓은 내 연구의 고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도피처였다. 하지만 크리스손을 만난 후부터, 이들의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일종의 순례가 되었다. 처음 말을 건 건, 크리스손이 동전을 걷기 위해 관객 사이를 오가던 때였다. 빠진 오라버니를 대신해 무리 속을 누비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가..... 이어졌다. 왜, 어떻게 그리 됐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세상에는 굳이 해답이 필요 없는 신비도 있는 법이다.

그날 밤 무용이 끝난 뒤, 나는 늘 그랬듯 크리스슨이 마누사에 올 때마다 기다리던 자리로 갔다. 시장 뒤편, 빛도 닿지 않고 누구도 다니지 않는 흥예길 밑. 야시장 인파가 절정일 땐 더욱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크리스슨은 날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나는 서둘러 크리스슨을 외진 골목으로 데려갔다. 혹시 누가 본 건 아닌지 두리번거렸다. 나 같은 마도공학자 겸 도시국가 귀족이 유목민과 다정히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 둘 다 곤란해질 일이었다. 내가 평의회와 잘 지내는 상황이라면 청원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처럼 눈 밖에 난 상태에서 크리스슨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았다.

서로에게 사랑을 전한 후, 나는 마음속 짐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밤늦도록 내 연구와 광휘의 환영, 평의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타자베쉬로 가자.” 크리스슨이 말했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골목 벽에 등을 기대었고, 크리스슨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손끝이 내 얼굴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손을 꼭 잡았다.

“난 도망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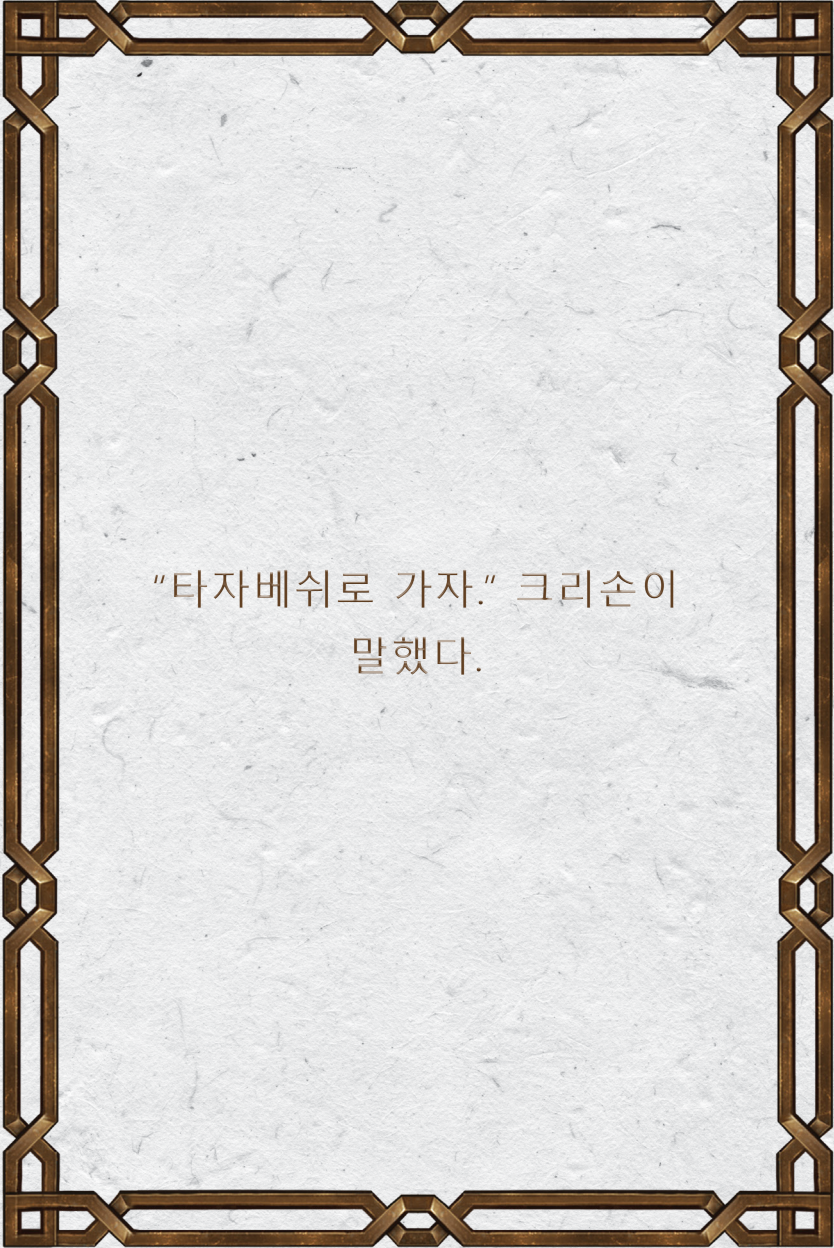
“도망치자고 한 말 아냐. 예언자들은 내일이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고, 영혼필경사는 살라다르와 함께 타자베쉬로 갈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자들을 따라가란 말이야?”

크리스슨은 몸을 떼며 눈을 부라렸다. “그게 아니야. 당신, 좀 쉬어야 해. 연구에서 잠시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 도움이 될 거야. 타자베쉬 시장에서 실험실에 필요하다고 한 부품도 사고. 며칠 동안 말만 하고 안 샀잖아.” 크리스슨은 씩 웃으며 망토를 머리까지 폭 뒤집어쓰고는 마치 늙은 노파처럼 손을 가슴에 그러쥐었다. “변장하고 같이 시장 구경하는 거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고, 거들떠도 안 보겠지!”

그녀는 웃으며 몸을 기울였고, 우리는 입을 맞쳤다. 크리스슨은 잠시 더 머물렀고, 결국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크리스슨과 함께 어두운 도시를 걸었다.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며 몰래몰래 웃음을 삼켰고, 그 소리는 닫힌 점포 문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마법무용수 숙소 앞에서 우린 마지막 입맞춤을 나눴다. 크리스슨이 떠난 뒤에도 사막의 향기가 머물렀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몇 걸음 걸었을 뿐이었는데..... 그제야 누군가가



“타자베쉬로 가자.” 크리스티가
말했다.

날 미행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머리를 덮은 거친 검은 자루가 벗겨졌을 때, 내 머릿속을 채운 건 오직 크리손뿐이었다. 공허도, 광휘의 환영도, 거룩한 서약도, 예언자들의 마지막 경고도, 그 모든 건 그녀를 향한 내 사랑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 우린 방심했다. *안알했다.*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오만이 미웠다.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주변이 밝았다.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살폈다. 내가 끌려온 곳은 창고였다. 상자와 자루, 시장에 필요한 온갖 화물이 쌓여 있는 장소. 지금 이 시간에는 죽은 듯 조용한 공간. 아무리 자비를 구걸해도 들릴 리 없는 곳이었다.

난 아직 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과연 어디까지 살아남고 싶다고 빌게 될까 생각하던 찰나, 누군가 내 앞에 서서 팔을 짝 붙들었다.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다. 이번엔 순전한 경악에서였다.

“카이베자!”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던 친구의 미소는 마치 떠오르는 해처럼 눈부셨다. 그녀는 내 팔을 세게 잡았지만, 뭐라 떠드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귀 안에는 고동치는 맥박 소리만이 가득했다. 납치범을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내 앞에서 그 여인 역시 두건을 젖혔다. 등불 아래 반짝이는 눈동자는 보석처럼 눈부셨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했고, 이내 내 등 뒤에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들어 인사했다.

살라다르 대사제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그를, 그리고 방 안에 모인 이들을 바라보았다. 공기에 찌릿한 긴장이 흘렀다. 살라다르와 카이베자를 포함해 다섯 명의 예언자가 눈에 들어왔다. 빌알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의회 출신이 아닌 마누사 사람들도 있었다. 마도공학자 알라쉬와 미데케스, 다르메토가 있었고, 그 옆에는 마누사 시장 조합의 상인 총감 두 명과 누군지 모를 이방인 두 명이 함께 있었다. 대사제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수수한 갈색 여행용 망토를 입고 있었고, 깊은 두건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완벽한 위장 수단이 되어주었다.

“나리를 만났나 보군.” 대사제가 말했다. 납치범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자 살라다르가 살짝 머쓱한 기색을 보였다. “좀 더 평범한 상황에서 만나기를 바랐는데

아쉽군. 나리는 내 가장 뛰어난 자 중 하나지. 든든한 동료가 되어줄 거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거요.” 빌알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빌알이 나에게 퍼부었던 냉정한 분노가 떠올랐다.

그 곁에서 카이베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얼굴에 떠오른 의심을 읽은 걸까. “매듭단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럼 다 알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매듭단?” 나는 대사제를 향해 몸을 돌렸다. “혹시 내가 꿈을 꾸는 거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밀 엄수를 강조하고 싶군.” 살라다르가 말했다. “오늘 밤 이 만남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살라다르가 방 안을 가리켰다. “우리는 매듭단이다. 크아레쉬에서 가장 냉철한 지성들을..... 모은 집단이지. 가장 날카롭고, 동시에 가장 신뢰받는 이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나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그제야 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영혼필경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 모인 이들의 지식과 기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지.” 대사제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동맹은 하나의 아주 특별한 이유로 내가 만들었다.”

“그건.....?”

“우리는 그대를 믿소.” 빌알이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나리를 만난 것도, 자루를 뒤집어쓴 것도 모두 헛것이고, 실은 유체 이탈이라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지금 이 기묘한 만남은 실은 내가 쓰러진 뒤 꾸는 열병의 허상이 아닐까? 어둠 속에서 뿔어져 나온 예언자들의 손길에 끌려가 몸뚱이는 이미 도랑에 버려졌고, 남은 건 이 혼란뿐인 정신이지 않을까.

“광휘의 환영 말이야.” 카이베자가 입을 열었다. “세계혼의 절규. 전부 사실이야. 우리는 당신을 믿어.”

“그렇다.” 살라다르가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들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의 환영은 미약하지. 멀리서 부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선율 같고, 어렴풋한 꿈에서 깨어난 뒤 남은 잔향 같지.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빌알이 덧붙였다. “점점 강해지고 있소. 소문도 마한가지지. 이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소.”

“그래서 그대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대사제가 말했다. “지금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온 거고.” 살라다르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평의회 회의는 모두 꾸며낸 연극이었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지.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상상조차 못 했던 진실이 눈앞에서 뒤집히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다른 감각이 찾아왔다. 가슴 한쪽이 환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무게를 덜어내는 감각.

희망.

“무릎을 꿇도록.”

살라다르가 손가락으로 자신 앞 바닥을 가리켰다. 방 안에 있던 비밀 결사의 일원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이건 서약의 의식이었다.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다시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싶었지만, 살라다르가 다시 손짓하자 나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낮췄다. 머릿속은 이미 쉼 없이 돌고 있었다.

“우리는 그대를 신뢰한다, 친구여.” 살라다르가 말을 이었다. “그대는 방대한 지식을 가졌고, 그보다 더 큰 지혜를 지녔지. 새로운 서약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하겠는가?”

새로운 서약을 받는다는 건 극히 드물게 내려지는 명예였다. 내 평생의 연구가 단순한 집념이 아닌, 경지에 이르렀음을 공식으로 인정받는 일이었다. 놀라움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내 얼굴에 그 답이 드러났던 모양이다. 살라다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의식을 시작했다.

“친구여, 그대는 대사제가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크아레쉬가 부르는 외침에 그대의 삶을 자발적으로 바치기로 맹세하는가?”

나는 미약한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맹세합니다.”

“그대는 서약의 길을 따르고, 그 인도를 끝까지 받들어 사명이 다할 때까지 헌신하겠는가?”

“맹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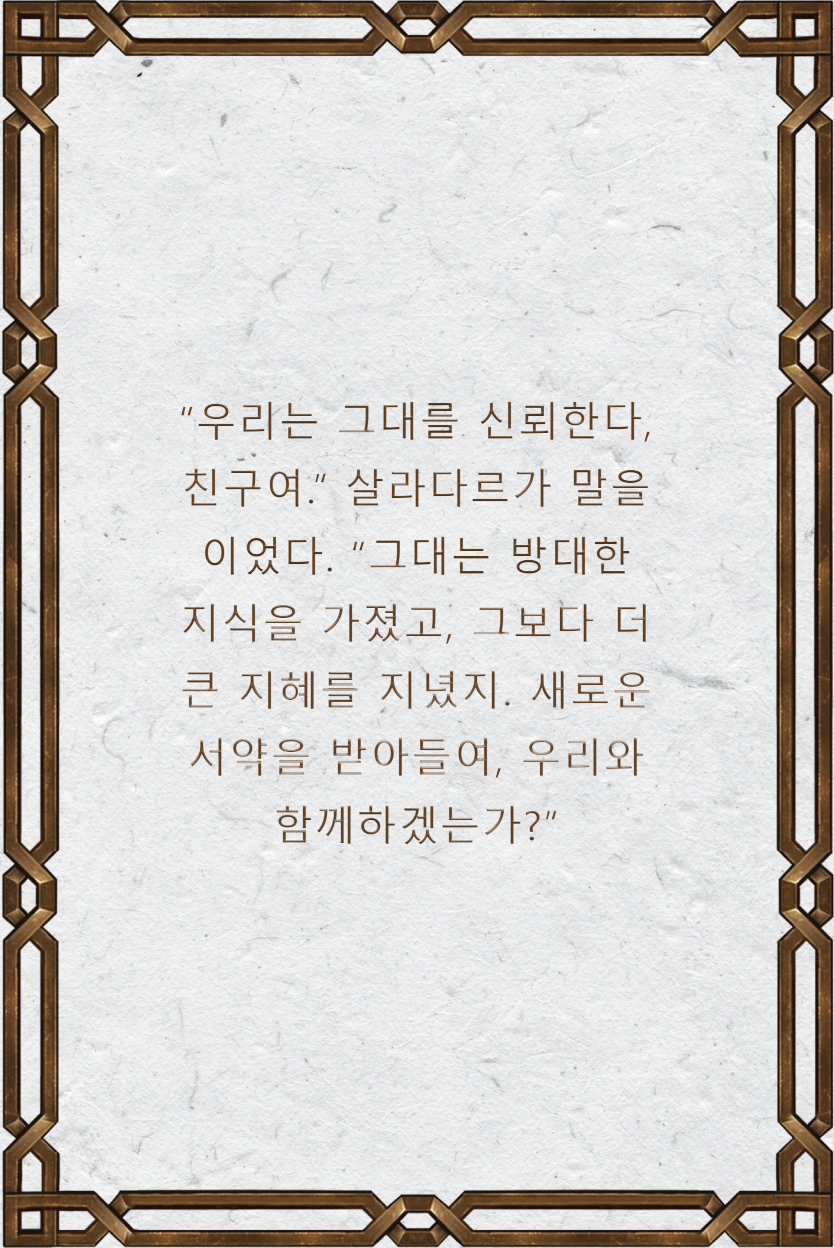
“그대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정신과 육체, 존재 전체를 사명에 바치며, 그 의미를 추구하고 본질을 이해하며, 더 이상 미지로 남지 않도록 신비를 섬기기로 맹세하는가?”

“맹세합니다.”

“서약은 곧 길이니,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위협을 경계하라. 서약은 곧 진리이니, 그대의 여정에 거짓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든 힘에 맞서라.”

그 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내 주위의 매듭단 또한 함께 일어섰다.

“그대에게 공간 방랑자라는 이름을 내리노라.” 살라다르가 말했다. “이것이



“우리는 그대를 신뢰한다,
친구여.” 살라다르가 말을
이었다. “그대는 방대한
지식을 가졌고, 그보다 더
큰 지혜를 지녔지. 새로운
서약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하겠는가?”

그대의 진실이며, 곧 나의 진실이다.” 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매듭단에 온 걸 환영한다.”

창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틈새로 새어든 햇살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모임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매듭단은 박수를 쳤고, 살라다르는 내 팔뚝을 힘 있게 잡으며 형제의 환영을 전했다. 하지만 살라다르가 내 팔뚝을 잡는 순간, 나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내 머릿속에서 울린 목소리였다. 공허의 속삭임은 언제나 익숙했기에, 필요할 땐 눌러 감췄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크고, 더 명확하게 들렸다. 공포가 다시금 엄습했지만, 난 스스로를 다잡았다. 감정을 밀어내며, 그 목소리가 오직 나한테만 들려준 말을 받아들였다.

경계하라, 공간 방랑자여. 경계하라.

한데 그다음에 들려온 소리는 달랐다. 이젠 나만이 아니라 동료들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소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매듭단은 한 몸처럼 굳었다. *비명*이 뒤섞인 합창, 공포에 질린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 절규가 들려오는 방향을 찾아 눈을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মানুষ의 모든 주민이 해돋이와 함께 깨어났다. 그리고 눈앞에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지른 것 같았다.

우리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침 햇살이 퍼지는 길목에서 우리는 일제히 숨을 삼켰다. 위로 펼쳐진 하늘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세계의 두 태양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늘 따뜻하던 빛이 점점 연해지고, 마침내 흐릿하게 사라져갔다. 하늘은 어두워졌다. 마치 밤이 있을 수 없는 시간에, 불가능한 속도로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처럼. 그 어둠은 처음엔 보랏빛이었다. 그리고 곧, 점점 더 밝아졌다.

그 자줏빛은 바로 공허의 색이었다.

경계하라, 공간 방랑자여.

만물의 포식자가 온다.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Master of Evil* 및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Big Finish 및 BBC Audio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WORLD
WARCRAFT
THE WAR WITHIN™

크아레쉬의 파멸

작가: ADAM CHRISTOPHER

— 2 —

공허로부터의 목소리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CYNTHIA SHEPPARD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CHEUNG TAI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NICHOLAS MCDOWEL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STEPHANIE YOON

제작

BRIANNE MESSINA, ANASTASIYA NALYVAIKO,

TAKAYUKI SHIMBO, VALERIE STONE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허가 텔로그리스 균열의 하늘 위에서 소용돌이쳤다. 공간 방랑자는 알레리아 윈드러너를 이끌며 추적을 계속했고, 알레리아는 어느새 시간 감각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지쳐 있었다. 이번 사냥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텔로그리스 균열은 공허의 존재들로 들끓었다. 전령의 마력에 이끌려 이곳으로 몰려든 존재들이었다. 둘은 많은 적을 피해 다녔지만,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었다. 물론 지금까지 마주친 것들은 모두 가볍게 처치해왔지만, 알레리아의 마음은 전투보다는 공간 방랑자가 그려 보여준 크아레쉬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으로 느껴지는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방랑자의 뒤를 따르며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알레리아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그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존재를 중심으로 공허가 휘어지는 듯한 감각. 거대한 바위를 넓은 강에 던졌을 때처럼, 공허의 매력 흐름이 갈라지고,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며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 감각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침내 일행은 멈춰 섰다. 균열의 황량한 지면에서 칼날처럼 솟아오른 암석 파편 뒤에 몸을 숨겼다. 가장자리로 눈부신 보랏빛 광휘가 감돌고 있었다. 그 너머에 공허의 망령이 있다는 증거였다.

“명심해라.” 공간 방랑자가 말했다. “이 존재는 지금껏 우리가 마주한 것들보다 훨씬 위험하다. 저 심장은 내 것이지만, 쓰러뜨리기 위해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알레리아는 활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내 힘도 과소평가하지 마.”

공간 방랑자는 봉대로 감싼 얼굴을 돌렸다. “넌 적을 쓰러뜨릴 힘을 원하지. 하지만 잘아타스는 그 힘조차 널 향해 휘두를 거다. 먼저 균형을 찾아야 해.”

알레리아의 표정이 무너졌다. 공간 방랑자는 이 여정에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요약된 역사만이 남았다. 더 강하게 와닿은 건 오히려 눈앞에 선 이 강대한 존재조차,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충고했던 그조차 한때는 흔들리고, 감정적이었으며, 사랑을 했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였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자신처럼.

“크아레쉬인은..... 어떻게 됐지? 크리스온?” 알레리아는 물었다. 절그러운 질문이란 걸 알면서도. “크리스온도 당신처럼 됐어? 아니면 크아레쉬가 파괴될 때 세상을 떠났어?”

알레리아의 스승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레리아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묻고자 했지만, 그 순간, 앞쪽의 보랏빛 광휘가 불쑥 타올랐다가 사라졌다. 공간 방랑자가 바위 뒤에서 걸어나갔고, 알레리아도 활을 든 채 그의 곁에 섰다.

평원은 텅 비어 있었다. 공허의 명령은 어디에도 없었다.

알레리아는 활을 내렸다. “정말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그랬지. 못 느꼈나?”

알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존재도 우리를 느꼈던 게 아닐까?”

공간 방랑자는 천천히 허공을 맴돌며 주위를 살폈다. 알레리아도 활을 든 채 시야를 훑었다.

그때 그녀는 보았다. 저 멀리, 바위 사이로 번뜩이는 보라색 광채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허가 머릿속에서 끌어당기는 감각이.

알레리아는 외치려 입을 열었지만, 공간 방랑자가 앞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알레리아도 즉시 내달렸다.



경계하라, 공간 방랑자여.

만물의 포식자가 온다.

그 말들이 발목을 붙잡았다. 보랏빛이 감도는 밤, 별조차 뜨지 않던 그 하늘,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그날의 공포가 늘 내 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날이 크아레쉬가 무너진 날은 아니었다. 물론, 불안은 도처에 퍼져 있었다. 시장은 닫혔고, 마누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국가가 마찬가지로였다. 사람들은 집 안에 몸을 숨겼다. 세상을 기묘하고 음침한 그림자로 뒤덮은 보랏빛을 두려워했다. 살라다르는 예언자 평의회를 소집했고, 수많은 계획이 논의되었다. 하늘이 만물의 종말을 예고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예언자들이 은둔한다는 유언비어도 나돌았다. 광휘의 환영을 본 자들 사이에서는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는 분노가 들끓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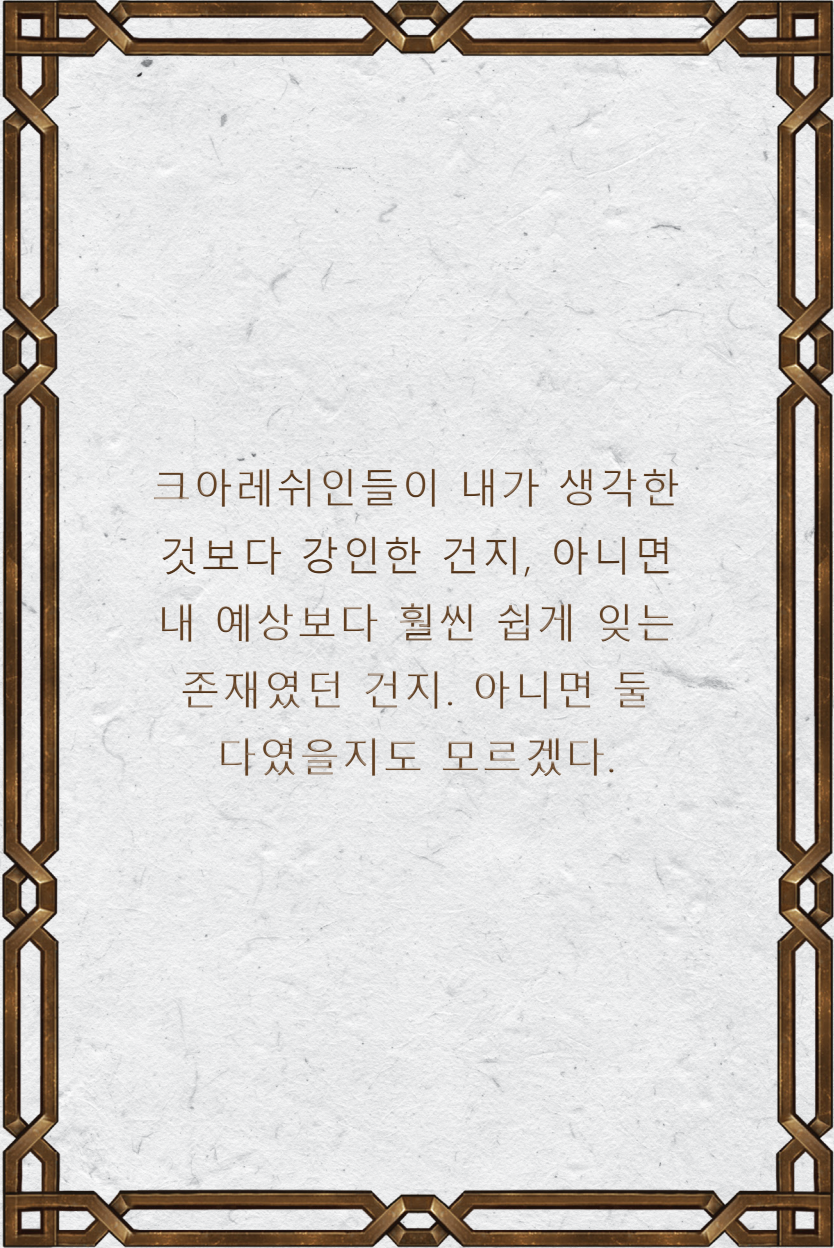
그러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엔 불신이, 이내 불신은 안도와 환희로 바뀌었다. 예언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악몽 같은 긴 밤을 쫓아낼 계획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 계획은 마도공학이 아닌 오래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래된 방식은 위안을 주었고, 사람들은 다시 희망의 지푸라기를 붙들었다. 그리고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으로, 어떻게 보면 허무할 만큼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크아레쉬인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인한 건지, 아니면 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잊는 존재였던 건지.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새로운 서약, 내 인생의 새로운 과업. 내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나는 세계를 구해야 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허가 거세게 밀려드는 탓에 출발이 늦어졌지만, 나는 결국 크리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타자베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다. 물론, 마누사는 언제까지나 *마음의 고향으로 남으리라*. 그렇지만 타자베쉬의 북적이는 시장에서 보낸 몇 달은 분명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 기쁨은 전적으로 크리슨 덕분이었다. 살라다르는 도시를 떠나지 않기로 했고, 영혼필경사 역시 함께 머물렀다. 말인즉슨 마법무용수들도 오랜만에 한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처음에 크리슨은 이 변화에 거슬림을 느꼈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유목민이었다. 길 위의 삶이 곧 *그들의 서약*이었고,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자신들이 춤으로 해방하려는



크아레쉬인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인한 건지, 아니면
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잊는
존재였던 건지.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다.

혼령을 스스로 가두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타자베쉬는 우리 누구에게도 진짜 고향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이점이 있었다. 시장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다. 우릴 감시하는 이도, 속삭임을 엿듣는 자도 없었다. 타자베쉬는 여러모로 더 자유로운 곳이었고, 주민들은 예전 같으면 금기시했을 우리 사이를 굳이 문제 삼지 않았다.

매듭단에서의 일은 중요했고, 동시에 고됐다. 매듭단은 약속대로 내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지만, 마누사에 있던 실험실을 통째로 옮기기란 무리였다. 대신 대사제는 타자베쉬의 자랑거리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허를 내주었다.

타자베쉬의 시장은 마누사 자체만큼 거대했다. 도시 안의 또 다른 도시 같았고, 구역마다 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탁자와 노점에는 크아레쉬 전역에서 온 온갖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사실 이전에도 와본 적 있었지만, 그 규모와 아름다움은 여전히 날 압도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그 사이를 가로지르며 펼쳐진 색색의 차양,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늘어지는 길이, 그리고 수십 개의 지방에서 올라온 수백 가지 향신료 연기까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고, 종말을 막기 위해 집중해야 했기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필요한 물품 확보는 크리스손에게 맡기게 되었다. 크리스손은 여러 지역을 다녔본 경험이 있었고, 장인이나 상인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능숙했다. 나는 인사조차 제대로 못 건넌 상인도, 크리스손은 태연하게 흥정을 벌였다.

연구는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내 곁엔 늘 크리스손이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었다.

경계하라, 공간 방랑자여.

만물의 포식자가 온다.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수주, 수개월이 지나면서 나는 광휘의 환영에 익숙해졌다. 이제는 대부분 무시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공허의 속삭임도 적지 않았다. 사실, 내가 공허를 향해 처음으로 관측경을 돌렸을 때부터, 그 안의 존재들이 말을 거는 소리는 늘 들려왔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달랐다. 그때의 그것이었다. 무언가 달라서, 내 안에 공포를 심었던 바로 그 목소리.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목소리는 날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시장 안에서 다시 들렸다. 나는 굳어버렸다.

공간 방랑자여, 경계하라.

나는 타자베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국가 중 하나, 틴갈라에서 온 유리

공예품을 파는 장인의 노점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물건들은 값이 비쌌고, 상인은 자신의 물건을 살 자격이 있다고 여긴 이에게만 접근을 허락했다.

공간 방랑자여, 경계하라.

만물의 포식자가 온다.

그의 도래가 임박했다.

그는 파멸이로다.

그 이름은 디멘시우스.

그는 공허의 군주요, 굶주렸도다.

나를 깨운 건 크리손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크라손이 상인에게 연신 사과를 하고 있었고, 상인은 경계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크리손은 말없이 날 데리고 처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다. 이야기를 마친 뒤, 크라손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내게 건넨 질문과 말들은 하나같이 예리했다. 그 목소리에 대해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걸 알게 된 사람도 크리손이 처음이었다.

“광휘의 환영과 관련 있겠지.” 크라손이 말했다. “공허를 연구하다가..... 뭔가 다른 것과 접촉한 건 아닐까?”

물론 나에겐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위로도 없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크라손 쪽으로 흘렀다. 마법무용수들이 다시 길을 떠난다는 소식이었다. 크리손은 원한다면 남아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꺼낸 순간부터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크라손에겐 자신만의 서약이 있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약속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흔든다 해도, 내 사명을 방해하게 두진 않겠다고.



몇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일은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쉬는 시간도, 끼니도, 그 어떤 위안도 포기한 채, 크리손과 함께했던 행복은 내 마음에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명명백백하게 두려움이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크아레쉬를 향해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장비들은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다. 공허 마력이 우리 세계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축적되고 있었다. 머지않아, 아니 곧, 이 공허 마력은 크아레쉬에 공포를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우리 세계를 갈기갈기 찢어 세계혼을 드러낼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은 그 마력의 향신료가 되어 식사로 내놓일 것이다.

만물의 포식자를 경계하라.

하지만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수 주간의 연구 끝에 나는 답을 찾았다. 사실 해답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제야 그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크아레쉬와 백성을 지킬 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세계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다.

매듭단이 필요했고, 전 세계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야만 가능했다. 나는 매듭단에 연구 경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그들을 탓할 수도 없었다. 나는 지쳐 있었고, 내 안엔 스스로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광기가 들끓고 있었다. 자료는 복잡했고, 나만 해독할 수 있었으며, 나는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전달자였다. 게다가 연구는 완성되지도 않았다. 아마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

하지만 나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대가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목소리, 그 목소리! 처음 단순한 경고였던 그것은 이제 하나의 시가 되어 내 생각 하나하나를 흔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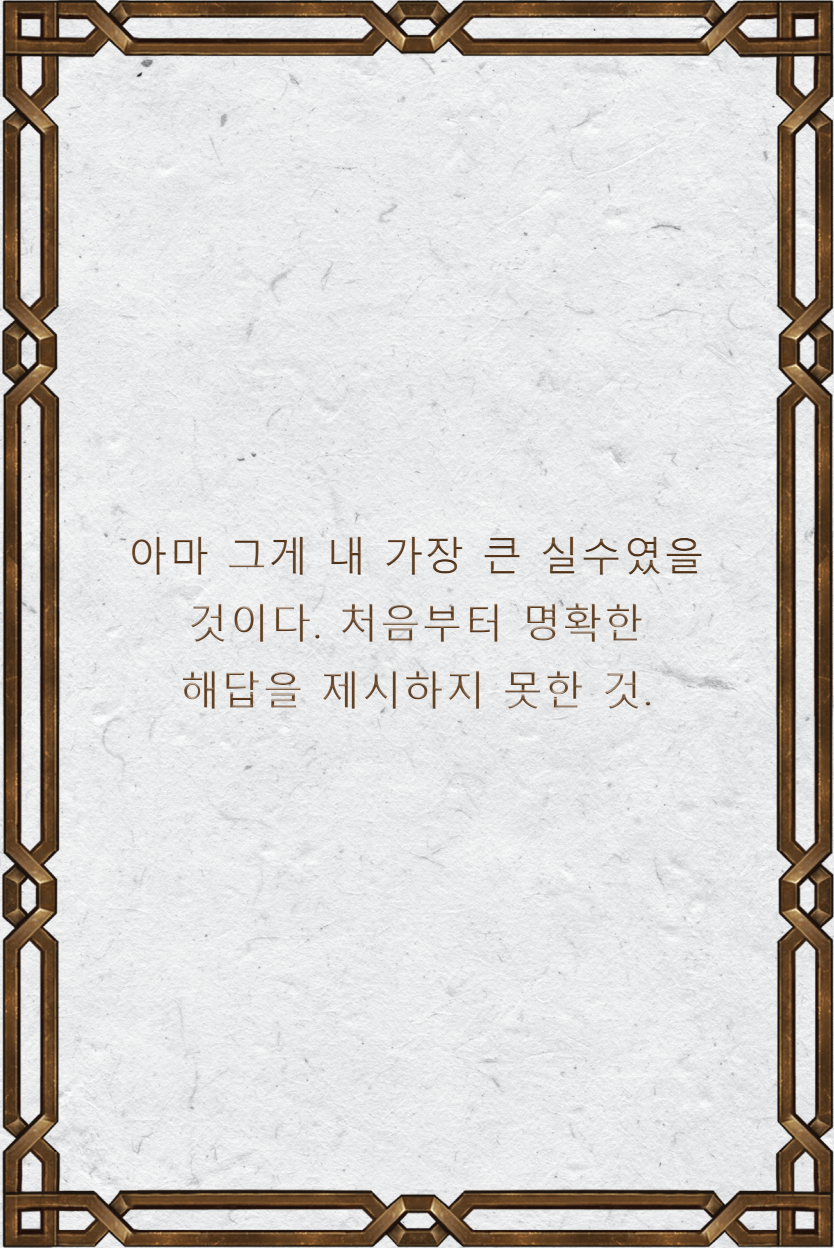
공간 방랑자여, 경계하라.

만물의 포식자가 온다.



실험실에서 몇 날 며칠 새우잠을 자며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끝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크리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인을 보는 순간, 어지러운 정신에 빛이 스며들었다. 크리슨은 나를 안았고, 나는 그저 서서 눈물을 흘렸다.

모든 감정을 쏟아낸 뒤, 그녀는 살짝 몸을 떼었다. 나는 입을 맞추려 다가갔고, 크리슨은 웃으며 날 밀쳐냈다. 그녀는 목욕을 준비했고,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연인의 손에 모든 걸 맡겼다. 크리슨은 뜨겁고 깊은 욕탕에서 날



아마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

씻겨주었다. 쌓여 있던 피로와 어지러운 시간, 공허의 찌꺼기까지. 그리고 다시 물을 갈아 함께 들어왔고, 그 순간만큼은 공허도 매듭단도 잊을 수 있었다. 심지어 내 안의 목소리조차, 크라손은 잠재했다.

나는.....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우리는 린넨으로 몸을 감싸고 따뜻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와인을 마셨다. 크라손은 자신이 다녀온 땅, 추었던 춤, 어째서 어둑한 공허가 드리운 하늘 아래에서도 크아레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째서 삶을, 나를 사랑하는지 이야기해주었다.

다시 제 모습을 되찾은 나는 확신을 가졌다. 내 연구에, 내 자료에. 그리고 내가 찾아낸 해답이 옳다는 것을.

내일이면 다들 이해하리라. 절대 거부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시선이 아득해지는 걸 크라손은 놓치지 않았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 연인의 말은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어둑처럼 싸늘한 메아리 따위가 아니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없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운 위협의 이름을 알아냈어.”

크라손은 고개를 가웃했고, 얼굴에는 염려가 떠올랐지만 말을 끊진 않았다.

“디멘시우스. 공허 군주야. 크아레쉬를 찢어발기려 하고 있지. 세계혼이 환영에서 외친 건 바로 이 존재 때문이야.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곧 이 존재가 행성을 쪼개고 집어삼킬 거야. 내 자료가 그렇게 말해. 세상은 부서지고, 크아레쉬인은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거야.”

크라손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읽혔다.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감정. 두려움이 그녀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크라손의 손을 더 꼭 쥐었다.

“하지만 내가 크아레쉬를 구할 수 있어.”

연인의 눈이 커졌다. “공허 군주를 막을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막을 수는 없어. 디멘시우스는 행성을 찢어발길 거야. 천재지변을 어떻게 막을까.”

“하지만 방금.....”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크아레쉬를 구할 수 있어. 하다못해..... 대부분은. 크아레쉬인은 살아남을 거야. 공허 군주가 포식을 중단할지, 다른

먹잇감을 찾을지는..... 알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다시 크라손과 사랑에 빠졌다. 크라손은 변하고 있었다. 내게, 내 연구에, 내가 서약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 자부심이 연인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를 강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크라손이 부드럽게 웃었다.

“매듭단은 뭐래?”

이번엔 나도 웃었다. “아직..... 말 안 했어.”

크라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얼굴을 굳혔다.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말 안 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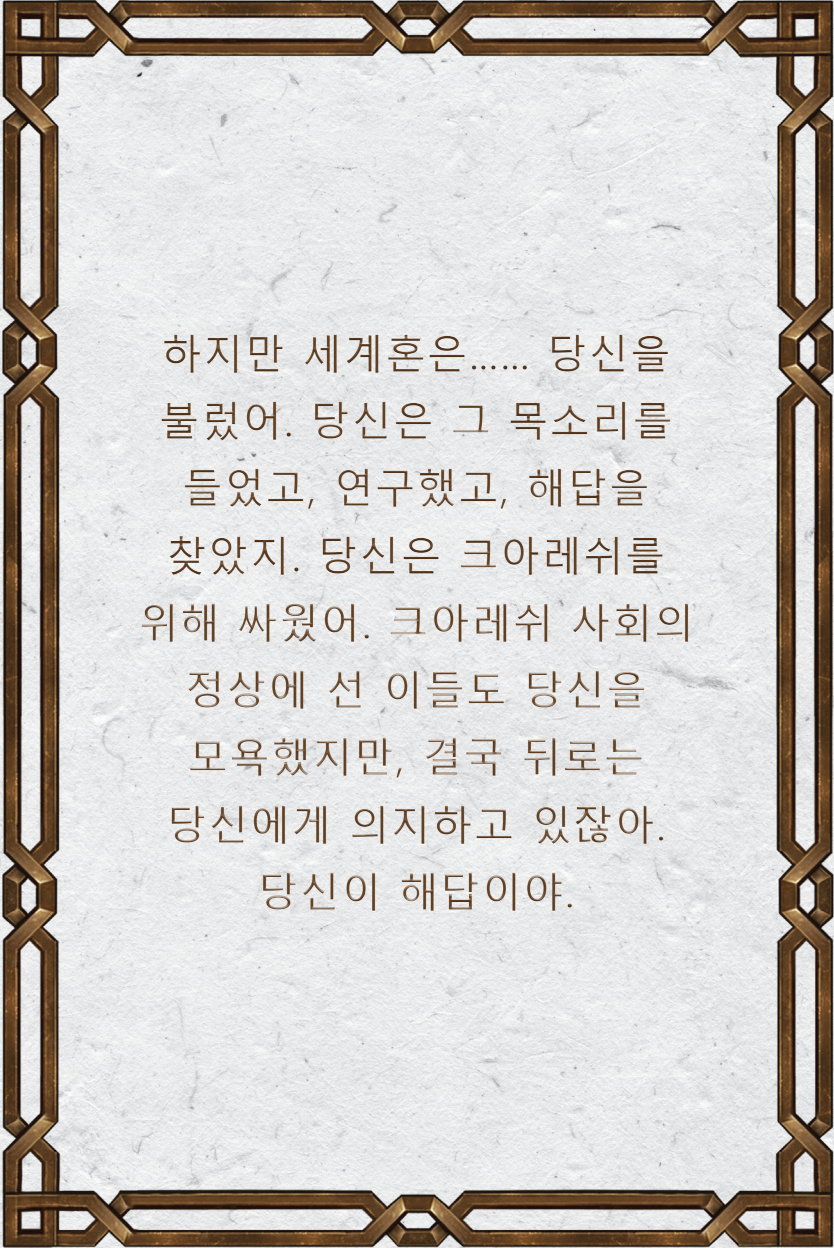
나는 한숨을 쉬었다. “많이..... 복잡해, 내 사랑. 매듭단은 하나로 뭉친 집단이 아니야. 내 말을 믿는 이도 있지만, 날 공허 마술사로 부르며 왜 매듭단에 들었냐고 비난하는 이도 있어. 나도 양 어깨가 무거워. 다들 지쳤어. 문제는 가득하고, 해답을 원하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놓는다면, 매듭단은 그 해답조차 목줄을 채워 질식사킬 거야.”

크라손은 두 팔을 꼭 감싸안고, 발을 구르며 방 안을 왔다갔다 하기 시작했다. 마치 마법무용수가 모래 위를 박차고 도는 모습 같았다. 나는 놀라움 속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나는 받아 마땅한 심판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해결책을 원한다면, 그냥 쥐버려!” 크리손은 발을 멈추지 않았다. “레시 리본이 얼마나 강한지 계산이 끝났으면, 보여주도록 해.” 크리손은 멈춰 서서 날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얼굴에 따뜻함이 녹아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잊었어? 당신은 공간 방랑자야. *그게* 당신이 맹세한 서약이고 *그게* 당신의 진실이야.” 크리손은 발코니로 나아가 어둠이 깔린 도시를 향해 팔을 벌렸다. “우린 강인해. 우리 크아레쉬인 모두. 하지만 세계혼은..... *당신을 불렀어*.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었고, 연구했고, 해답을 찾았지. 당신은 크아레쉬를 위해 싸웠어. 크아레쉬 사회의 정상에 선 이들도 당신을 모욕했지만, 결국 뒤로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잖아. *당신이 해답이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누구도, 내게 이런 믿음을, 이런 찬란한 확신을 내던진 존재는 없었다. 크리손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켰고, 부드럽게 입을 맞쳤다. “당신은 세상을 구할 수 있어, 내 사랑. *그게* 당신의 진실이야.”

나는 크라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연인의 품에서 떨어졌다. 나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크라손은 굳건했다. 그 힘은 이 세상의



하지만 세계혼은..... 당신을
불렀어.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었고, 연구했고, 해답을
찾았지. 당신은 크아레쉬를
위해 싸웠어. 크아레쉬 사회의
정상에 선 이들도 당신을
모욕했지만, 결국 뒤로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잖아.
당신이 해답이야.

기적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울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렸고, 의심과 두려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그 사이 매듭단도 저마다의 의심과 공포에 갇혀 있었다.

이젠 됐다. *이젠 됐어.* 나는 공간 방랑자. 준비는 끝났다.

공허가 온다 해도, 크아레쉬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연구 보고서를 들고 매듭단을 만나러 가던 길에 나리와 카이베자를 만났다. 이 뛰어난 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지냈던 두 사람이었다. 나는 시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의 환한 표정은 곧 머뭇거림으로 흐려졌다.

망토의 두건을 젖혔다. 내 호전된 상태가 눈에 분명하게 보였는지, 두 사람 모두 놀라움 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베자의 얼굴에 찡그림이 스쳤고,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돌았다. 손에는 보고서가 단단히 묶인 채 들려 있었고, 나는 그것을 더욱 꼭 쥐었다.

"소문이 돌고 있어." 카이베자가 말했다. 그러곤 말이 끊겼다. 그녀의 시선은 모래 먼지가 내려앉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이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전, 마지막 예언자 회의에서 마주했던 그 눈빛과 같았다.

"매듭단 안에서도 거리를 두려는 이들이 있어." 나리가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연구로부터."

나는 나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새겨져 있길라도 한 듯이.

만물의 포식자를 경계하라.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나리. 근데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지금에서야 이런 경고를 하는 거야?"

디멘시우스를 경계하라.

나리는 잠시 말을 골랐다. "당신의 연구는 평의회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워. 당신은 곧 다가오는 공허 마력이 이 행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징후를 본 적이 없어.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자료와 분석뿐이야.* 일각에서는 옛 방식이 잘 통했으니, 마도공학은 이제 크아레쉬에 줄 게 없다는 말까지 나와.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을 몰아내려 해,” 카이베자가 말을 받았다. “어젯밤 대표단이 우릴 찾아왔어. 당신의 서약을 철회하자고. 당신을 공간 방랑자가 아닌 공허 마술사로 부르는 자들이야. 오늘 회의장에서 버르고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리의 말은 더욱 절박해졌다. “들어줘! 아직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은 있어. 많진 않지만. 당신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어. 다행히 그중에는 살라다르도 포함되어 있지. 하지만 대사제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모두가 *해답을 원해*.”

나는 나리의 조언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어쩌면 오랜 친구인 카이베자보다도. 예언자의 잠입 요원이면서 *동시에* 매듭단의 일원이었던 나리는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 사람들은 나리 앞에서 무심결에 마음을 털어놓았고, 시류를 그녀만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는 없었다.

만물의 포식자를 경계하라.

“해답은 *준비됐어*.” 나는 말했다. 자부심을 숨기지 못한 말투였다. “여기. 봐. 연구는 끝났어. 난 *준비됐어*.”

나는 손에 쥔 문서를 펼치려 했다. 그러나 나리가 단단히 내 손을 붙들었다.

디멘시우스를 경계하라.

“확실해?”

공허의 군주를 경계하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연 거야.”

그는 *굶주렸도다*.

“내가 크아레쉬를 구할 수 있어.”

나리와 카이베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이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



크리손의 조언에 따라 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회의 소집을 알렸다. 그리고 매듭단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응답했다. 나리와 카이베자와 함께 조합 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두 사람이 한 경고를 떠올렸다. 매듭단의 빠른 응답은 내 해답을 들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 아닐 수도 있었다. 혹시 내 몰락을 목격하려는 열의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시장에서 잠시 멈춘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 일행은 내 의도대로 매듭단의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회의 장소에 도착했다. 나는 여행용 망토를 벗고 매듭단을 맞이했다.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나는 반가이 인사했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놀란 표정을 눈에 담았다. 목욕재계를 마치고 단정하게 정리한 외양, 금빛과 보랏빛으로 장식된 마도공학자 정복, 마누사의 귀족만이 쓸 수 있는 관이 내 이마를 누르고 있었다. 그 모습에 타자베쉬의 지도자 빌알마저도 억누를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우리 사이에 위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나에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그 변화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귀를 닫은 자들에게 끝없이 문제를 증명해 보여야 했다. 이번에는 저들의 마음을 다시 열어 해답을 보여줄 것이다.

“내 계획은 겉으론 단순하지만.....” 나는 운을 띄웠다. “크아레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업이 될 것이오.” 미리 가져온 두루마리를 펼칠 필요조차 없었다. 이 계획의 세부 사항은 오래전에 외운 노래처럼 읊을 수 있었으니까. 대신 꺼낸 것은 내 논점을 증명할 또 하나의 물건이었다. 그건 한 줄기 은빛 천조각이었다. 실로 가벼웠고, 부드럽게 흐르며 물결쳤다. 마치 조용한 강물처럼. 하지만 손 안에서 움직이자 마력이 빛을 발했고, 조합 회관 내부를 신비로운 광채로 가득 채웠다. 희미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그 빛은 천에 깃든 힘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히 보여주었다.

“레시 리본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이 알 거요.” “크아레쉬 각지의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지. 옛 방식과의 유대를 상징하며,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라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겠소. 이 리본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오. 이 안에 비전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힘을 꺼낼 방법을 알아낸 사람은 나 하나뿐이오.” 나는 천조각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내가 설계한 장치로 이 신성한 유물은 모든 형태의 마력을 순수한 비전력으로 변환할 수 있소. 이 힘을 이용할 거요. 거대한 반응로의 핵에 집중하는 거지. 반응로의 설계도 또한 내가 완성해 두었소.”

그때 빌알이 앞으로 나섰다. 나는 리본을 낮추어 그에게 보였다. 빌알은 조심스럽게 눈으로 훑었다. 마치 직접 손을 대는 게 두려운 듯 거리를 둔 채로.

마침내 빌알은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반응로.....?”

“그렇소.” “이 반응로는 광대한 비전 마법 방벽에 동력을 공급할 거요. 이 방벽은 크아레쉬 전역의 도시국가 위에 전개할 수 있고, 누구도 뚫을 수 없으며, 절대 무너지지 않소. 우리를 지켜줄 것이요.” 나는 평의회 전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해하지 마시오. 공허는 일격을 가할 순간을 재고 있소. 나는 연구 끝에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바로 공허 군주, 디멘시우스라는 걸 알아냈소. 이 무시무시한 존재는 때를 노리다 우리의 행성을 부숴버릴 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멸의 순간은 가까워지고 있지. 막는 건 불가능하오.” 나는 손에 든 천조각을 다시 높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탐낼 먹잇감은 없을 거요. 우리는, 크아레쉬인은 방벽 아래 살아남을 테니까.”

매듭단은 조용히 내 제안을 곱씹었다. 구석에 있던 나리가 미소를 지었고, 카이베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일어섰다. 카이베자는 군중을 뚫고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말했다. “확신해.”

살라다르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방벽을 건설하는 일은 은폐가 불가능해. 많은 일손이 필요할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요. 광휘의 환영을 본 이는 우리뿐이 아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공허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소. 당신은 대사제잖소. 사람들이 당신과 예언자들에게 해답을 구하고 있지. 전부 다 털어놓아야 하오. 크아레쉬를 구하려면 마법 방벽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하오.”

빌알이 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계획만 해도 엄청날 거야. 그리고 이 중에서 제대로 이해한 건..... 그대 한 명뿐이잖소.” 빌알은 살라다르를 흘끗 보았다. “이걸 조율하려면, 내가—”

“공간 방랑자에게 맡기죠.”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나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신이 앉아 있던 벽감에서 걸어 나와 말했다. “매듭단은 공간 방랑자가 필요하니다. 우리가 포섭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나리는 방 안을 돌며 모든 구성원을 바라보았다. “우린 지금 말다툼을 벌일 시간이 없습니다. 토론을 할 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을 이끌고, 세상을 대비시킬 누군가가.”

나리는 내 앞에 멈춰 섰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공간 방랑자에게 맡깁시다. 공간 방랑자의 지휘를 따른다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요.”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에트리에스의 비웃음이 가장 컸지만, 나는 무시했다. 나머지는 찡그린 얼굴이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들 역시 나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빌알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다. “우습군.” 나를 뜯어보는 시선이 꼭 고물 가판대의 폐품을 보는 듯했다. 마누사의 마도공학자가 길들지 않은 자의 대사제에게 명령을 내린다니.”

살라다르는 마치 통증을 느끼는 듯 눈을 찌푸렸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에트리에스가 소리쳤다.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은 내 명을 따르지.” 살라다르가 말했다.

“어쩌면.....” 이번엔 드물게 말문을 여는 상인 총감, 게즈헤르였다. 회의에서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한 말을 했다. “공간 방랑자가 내놓은 이 설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면.....” 총감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의 방식을 더 잘 이해한다면, 리본의 책임도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

카이베자가 끼어들었다. “시간 낭비야! 공간 방랑자의 설명을 다 들었잖아. 공허가 디멘시우스와 함께 다가오고 있어. 행동해야 해. 지금 당장.” 카이베자가 살라다르에게 성큼 다가섰고, 대사제의 몸이 살짝 움찔했다. “말해주시오, 대사제. 지시만 내려주면 우리는 바로 시작할 수 있소.”

빌알이 또 웃었다. “마누사 사람들은 인내심이 대단한 걸로 명성이 자자한데, 지금 카이베자 그대의 태도는 썩 반갑지 않군.”

“그만.”

모든 시선이 대사제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대사제는 날 바라보더니, 단 한 마디로 권위를 내려주었다.

“이미 결정되었다. 매듭단은 이제 공간 방랑자의 지휘를 따른다. 그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인다. 나의 마지막 지시는 단 하나. 즉시 과업을 시작하라.”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하나둘씩 매듭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에 섰다. 남은 건 빌알과 에트리에스뿐. 하지만 이제 내 뒤에는 대사제를 포함한 동료들이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서서 손을 내밀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
제 삶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왔죠. 또 한동안은 여기
머물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 카이론이 대신 말을
끝맺었다.

“우리는 크아레쉬를 위해, 크아레쉬인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요.”

그 말이 충분했는지, 에트리에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결단이 빌알에게도 영향을 준 듯했다. 한참이나 앉아 있던 그는 마침내 우리에게 합류했다. 내게 보내는 눈빛은 차갑고 험악했지만, 나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



크아레쉬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말로는 일어난 일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 세계에 닥친 변화는 실로 급격했고, 충격적이었다. 예언자 평의회 명령에 따라, 그리고 비밀리에 매듭단을 이끄는 나의 주도 아래 모든 노력이 내가 제안한 비전 반응로의 건설에 집중되었다. 크아레쉬인들은 새로운 서약을 맺고, 이 위대한 사명의 길에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

세상이 움직이는 그동안, 공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다. 그러나 곧 나는 목소리를 받아들였다. 내게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오히려 목소리는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었다.

목소리는 말했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디멘시우스가 가까이 와 있다고. 머지않아 공허가 우리 세계를 어루만질 것이며, 그 뒤엔 우리 모두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고.

사실 여론도 갈렸다. 다만 이견이라는 말로는 그 감정의 크기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타자베쉬와 마누사, 가스탈트와 데르바슈나,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도시국가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거리와 운하, 시장과 광장은 더 이상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물이 아닌, 레시 리본에서 생성된 왕왕거리는 비전 마력을 실어 나르는 관로와 수로, 배관과 도관이 뒤얽힌 미로가 되었고, 그 모든 구조는 반응로에서 반응로로 이어지며 하늘 위의 방벽을 지탱하는 거대한 거미줄이 되어 있었다.

민심은 빠르게 바뀌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공허가 정말로 우리 세계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으니까. 내 계산이 예측한 그대로였고, 공허의 목소리가 경고했던 바 그대로였다.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기를 맞춰 건설을 끝냈다.

비전의 방벽이 하늘 위로 솟구쳤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생명을 얻듯

깨어났고, 공허의 어둠이 폭풍 속 모래처럼 몰아쳐도 굳건히 버텼다. 방벽은 작동했고, 크아레쉬인들은 안도의 환호를 터뜨렸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도시국가 안에서. 사랑하는 터전에서.

처음 포식의 전쟁의 막이 오른 와중에도, 그 순간만큼은 크아레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동족이 살아남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는지. 나는 하나의 파멸에서 크아레쉬를 구했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파멸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
제 삶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왔죠. 또 한동안은 여기
머물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 카이론이 대신 말을
끝맺었다.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Master of Evil* 및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Big Finish 및 BBC Audio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크아레쉬의 파멸

작가: ADAM CHRISTOPHER

— 3 —
공허로부터의 목소리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CYNTHIA SHEPPARD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CHEUNG TAI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NICHOLAS MCDOWEL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STEPHANIE YOON

제작

BRIANNE MESSINA, ANASTASIYA NALYVAIKO,

TAKAYUKI SHIMBO, VALERIE STONE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수년은, 크아레쉬인들의 마음속에서도 크아레쉬 그 자체에도 끔찍하고 암울한 시간이었다. 물론 방벽은 버텼다. 그리고 굳건했다. 하지만 이제 세계를 살아가게 해주는 건 방벽의 희미한 마법의 빛과 기이한 따스함뿐이었다. 크아레쉬의 쌍둥이 태양, 메테르와 티메테르는 다시는 이 땅을, 그리고 어떤 땅도 밝히지 않을 것이다. 두 태양은 끝을 모르는 디멘시우스의 허기에 먹혀, *삼켜지고*, 사라졌다. 크아레쉬는 홀로 남겨졌다. 공허에 갇힌 채, 무시무시한 군주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족의 내면에는 하늘처럼 어두운 미래 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희망, 예언자 평의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매듭단은, *나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방벽 너머, 공허는 살아 있는 짐승처럼 날뛰었다. 하지만 크아레쉬인들은 또 다른 형태의 힘을 찾아냈다. 방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길들지 않은 자, 등가교환 계파, 시련 계파, 설계사 계파. 누구도 예외로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 주문과 마법, 기계와 기발한 장치로 이해할 수 없는 공허와 맞섰다. 공허는 형상이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크아레쉬인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강인하고 꺾이지 않았다. 이걸 공허 군주 디멘시우스조차 예측하지 못한 힘이었다.

그리하여 방벽은 버텼고..... 전쟁으로 시작된 사태는 이내 포위전의 양상으로 변해갔다. 그래, 우리는 보호받고 있었다. 그래, 삶은 가능한 한 최선의 형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진실은 이것이었다.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보호막은 끔찍한 대가와 맞바꾼 것이었다. 마법 방벽은 도시를 구해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육신을 산 채로 벗겨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렇듯 다양했다. 하지만 곧 모든 사람이 이 증상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쇠락.

나는 징후를 일찍부터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내 오만을 지금도 저주하지 않을 수 없다. 방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을 무렵, 작업에 투입된 이들이 먼저 말라갔다. 몸은 약해졌고 피부는 벗겨졌다. 거대한 화염 속에서 재처럼 타올랐다. 어쩌면 내 연구, 내 계산을 더 일찍 의심해야 했다. 내 스스로 의심해야 했고, 늘 내 곁에 있던 나리가 그랬어야 했고, 지도자와 조연자를 자처했던 매듭단이 그래야 했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이들이 보았더라면, 내가 숨긴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단순했다. 거대한 반구는 걸으면 단단해 보였지만 그 힘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불안정한 흐름 위에 놓여 있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마력을 끌어들이어야만 흐름이 유지되었다. 내 계산은 섬뚱했지만 정확했다. 그리고 단기적 포위 상황에서라면 감내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디멘시우스는 시간을 '달'이나 '해'가 아닌 '영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포위전이 길어질수록 크아레쉬인들의 운명은 더욱 참혹해졌다.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마도공학자와 마법사들에게 자문했다. 하지만 문제의 규모가 드러날수록, 이들은 점점 내 연구에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자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납골당에서 꺼낸 낡은 고서, 이질적인 시대와 장소의 마법과 주문에 파묻혔다. 내가 주지 못한 해답을 찾겠다며 미신과 의식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쇠락은 이내 마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노동자들뿐 아니라 도시의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퍼져갔다. 살은 타오르듯 그을렸고, 몸은 뒤틀리며 시들어갔다. 열기 하나 없는데도 피부는 솟처럼 까맣게 타들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방벽의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
제 삶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왔죠. 또 한동안은 여기
머물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 카이론이 대신 말을
끝맺었다.

마력은 수십 개 태양처럼 사람들을 짓뭇했다. 예언자부터 황무지의 유목민까지, 모두가 무너지는 몸을 겹겹이 감은 봉대로 가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방벽 안의 도시국가, 더 이상 얼굴도,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존재들로 채워졌다.

크라레쉬인은 강인했다. 단지 그 정도가 아니었을 뿐. 차원이 다른 시련이었다. 그리고 나는 쇠락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예언자 평의회가 수년간 정립해온 사회 체계는, 봉대가 해체되듯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있던 불만의 속삭임은, 일찍이 도시국가에서 볼 수 없었던 폭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번져갔다.

처음에는 쇠락이, 그리고..... 혼돈이. 공허와 맞서 싸우던 일부는 동족에게 마법을 날렸다. 타자베쉬와 마누사의 일부 구역은 비전 반응로와 그 도관에 맡겨진 채 버려졌고, 그곳은 전장이 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슬픔 속에서. 우리가 미쳐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언자들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서약을 향한 크아레쉬인의 깊은 헌신 덕분에 우린 무정부 상태만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조차 공기는 찢어질 듯한 긴장으로 팽팽히 감겨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 무의미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저질렀다. 사실 레시 리본은, 어떠한 마력이든 전환해내는 데 완벽했다. 하물며 공허의 마력조차도. 방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 레시 리본은 크아레쉬를 촘촘하게 뒤덮은 비전 반응로 연결망을 따라 마력을 전달했지만, 그 특성상 이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공허의 힘은 강력했다. 디멘시우스가 충격을 가할 때마다 방벽은 그 힘을 흡수했고, 레시 리본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 힘을 다시 비전 마력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처음엔 환희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 종족의 파멸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를 거듭하며 축적되는 비전 마력. 그 끝없는 노출이야말로..... 쇠락의 진짜 원인이었다.

방벽은 살아남겠지만, 안에 갇힌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디멘시우스가 정말 방벽을 뚫고 들어온다면 그가 삼킬 세계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나 무서워.”

크리손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내 쪽이 아닌 반대편을 향해 있었다. 나는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곁에는 새 봉대가 감겨 있는 실꾸리 하나, 그리고 몸에 감긴 오래된 봉대를 잘라내기 위해 늘 사용하는 가위가 놓여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봉대 아래의 피부를 떠올렸다. 내 손 아래 느껴졌던 그 감촉, 부드러움과 따뜻함. 그 감촉을 내가 다시 느낄 날이 올까?

“내 사랑?”

크리손이 몸을 돌려 나를 마주보았다. 나는 연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얇게 갈라진 봉대 틈 사이로 빛나는 두 개의 보석을. 크라손에게서 보이는 건 그 눈뿐이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오직 두 눈뿐이었다.

크라손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물론 예전에도 두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도 느꼈으니까. 크라손의 두려움은 자신이나 나에 대한 게 아니라, 크아레쉬와 크아레쉬인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이 헛된 것이고, 수많은 노력 끝에 쌓은 방벽이 그저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조금 늦춘 것에 불과했다면? 그 방벽이 우리 종족을 생지옥에 가두었고, 디멘시우스가 오기도 전에 몸과 정신을 파괴해 버린 거라면?

크리손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봉대를 갈아주는 일을 재개했다. 첫 번째 봉대를 잘라내자, 크리손이 숨을 내쉬었다. 봉대는 이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어떤 크아레쉬인도 익숙해지지 못했다.

“우리가 죽으면.....” 크리손이 말했다. “적어도 함께 죽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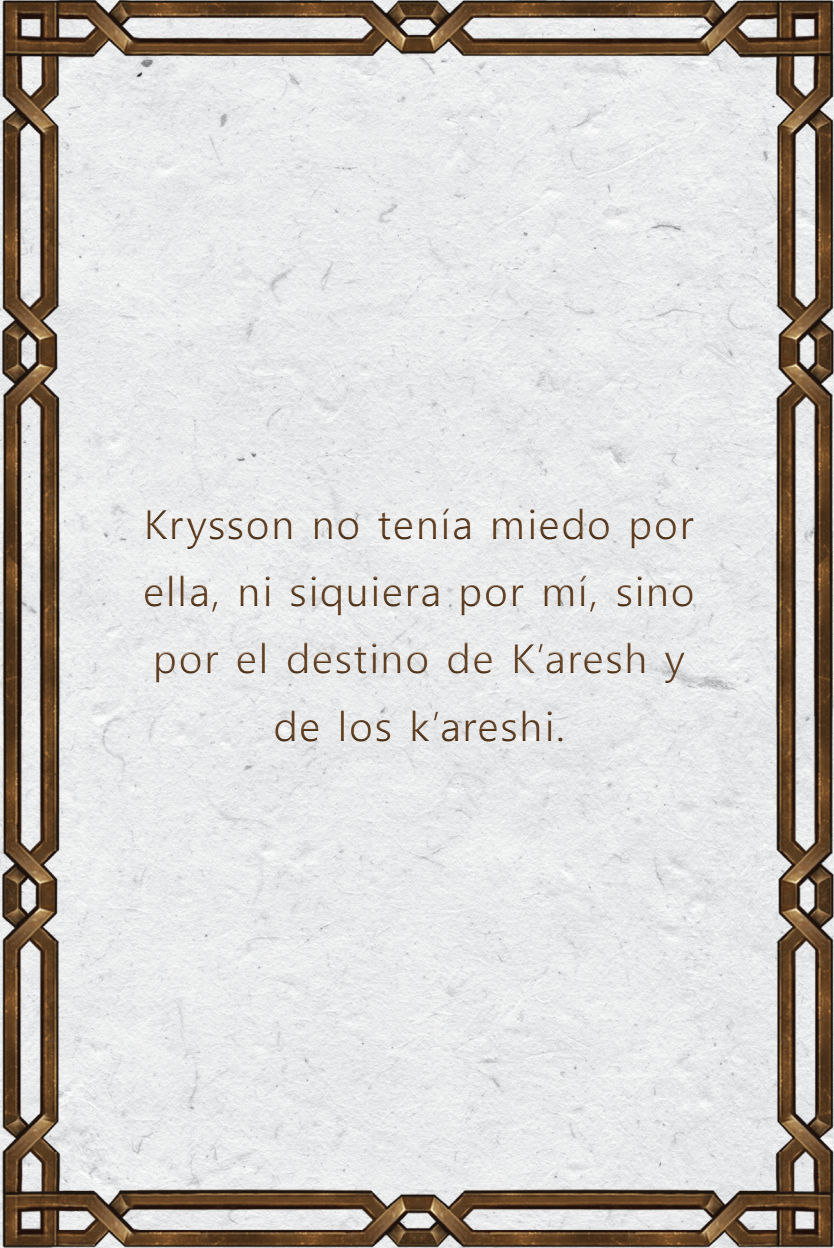
나는 계속해서 가위를 움직였다.

“그리고 싸우다 죽는 거잖아. 당신은 크아레쉬를 잘 지켜냈어, 내 사랑. 방벽은 제 역할을 했어.”

나는 웃음을 참았다. 그 반응이 너무 낯설어 손을 멈췄다. “난 크아레쉬인을 지켜냈어. 그런데 이젠 서로 싸우고, 방벽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어. 결국 필연을 잠시 미룬 것뿐이야. 우리가 해온 이 모든 건..... 가끔은 왜 그랬나 싶어.”

“우리를 위해서였지.” 크리손이 몸을 돌려 봉대로 감싼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쥐었다. “우린 크아레쉬인으로 죽는 거야. 끔찍한 공허에 물들어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영원한 고통이지. 당신은 우리를 그 운명에서 구해냈어. 그리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했고.”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건 오래전부터 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하나의 단순한 소리. 아니, 하나의 생각이었다. 다른 모든



Krysson no tenía miedo por
ella, ni siquiera por mí, sino
por el destino de K'aresh y
de los k'areshi.

걸 삼키는 종처럼 맑게 올리는 하나의 인식.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이젠 크리손의 눈이 아닌, 등 뒤에 남은 마지막 봉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봉대는 썩어 들어간 살로 얼룩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크리손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나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녀가 놀라 내 손을 찾았지만, 나는 이미 일어난 상태였다. 등불을 켜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방은 *어둡지 않았다!*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크리손에게서 나왔다. 창백하고 미약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빛.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나는 빛이 어떻게 봉대 아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노출된 부분뿐 아니라 몸의 다른 곳에서도 빛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알고 있었다. 크아레쉬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지난 수년간 익숙해진 바로 그 빛.

비전 방벽의 빛이었다. 크리손의 상처는 더 이상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마법의 영역이었다.* 레시 리본의 변환 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번에도 내 계산을 뛰어넘은 셈이었다.

육체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구나.

나는 끔찍하지 못했다. 크리손의 몸에서 퍼져나온 마력의 빛이 방 안을, 내 몸을 타고 물결쳤다.

그 이상이 되었지.

나는 내 마음속에서 다시 목소리를 들었다. 저항하려 애썼다.

그래, 알 거다. 그게 해답이란 것을.

고개를 돌려 지금 막 내 어깨 뒤에 다가선 듯한 존재를 마주하고 싶은 욕구를. *알고 있잖아.*

하지만 그 존재는 거기 없었다.

하지만 네 종족은 들어줄까?

그 순간, 내 생에서 두 번째로 크아레쉬인을 구할 방법을 알게 되었다.



살라다르는 크리손을 응시했다. 크라손을 이 자리에 부른 것, 빛나는 육신을

드러내게 한 것.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은 듯한 요청이 나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크라손은 기꺼이 수락했다.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크아레쉬에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 있지 않을지 몰라도, 크아레쉬인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다는 걸 그녀는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살라다르는 매듭단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소수였다. 쇠락으로 인해 많은 동료들이 사라졌고, 남은 이들은 모두 봉대로 감싸인 채, 관직의 옷이나 예복만이 그들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표식이 되었다.

살라다르가 지켜보는 가운데, 크리손은 등의 봉대를 천천히 걷었다. 그리고 왼팔의 봉대도 풀어냈다. 크라손의 시커먼 힘줄에는 마치 고대의 돌길처럼 균열이 나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비전의 광채가 새어 나왔다.

“계산에 자신이 있던데.”

카이베자의 목소리였다. 그건 질문이 아닌 진술이었다. 언제나처럼, 카이베자와 나리는 내 곁에 서 있었다. 이번만큼은 나리의 미소를 볼 수 없었지만, 봉대 아래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표정이 숨겨져 있으리라 믿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살라다르를 향해 돌아섰다.

“레시 리본은 정말로 강력한 유물이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지.” 나는 봉대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 “보이지 않소? 우리가 마력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 세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소. 자유로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요. 끝없는 어둠 저 너머 어디로든. 레시 리본은 단순히 살아남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오.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바꿔줄 열쇠지.”

살라다르는 움찔했다. 그는 빌알을 쳐다봤지만, 둘 사이에 말은 오가지 않았다. 표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둘의 몸짓은 펼친 책처럼 분명했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쇠락은 막을 수 없소. 방벽이 불러온 부산물이자, 우리 종족이 향하는 불가피한 종말이오. 하지만 만약 그게 끝이 아니라면?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마력의 변환. *크아레쉬인의 변환*.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하리다. 가능하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스스로 봉대를 찢어냈다. 그 아래엔 거의 미라화된 살점이 부서질 듯한 뼈에 간신히 붙어 있었지만..... 그래, 보였다. 희미하긴 해도 분명히. 그 빛이. 비전의 빛이. “육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요. 레시 리본을 통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마력*으로 변환할 수 있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소. 그리고 우리의 세계도. 방벽이 없는 새로운 크아레쉬, 디멘시우스의 손이 닿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소.”

나는 멈췄고, 내 주위의 매듭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저주했다. 우리가 착용해야만 하는 이 봉대들을. 진짜 표정을 볼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더는 말할 게 없다는 것도. 레시 리본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단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낼지는 아직 몰랐다. 그 구조를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게 내심 부끄러웠다.

하지만 내 동료들의 안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때, 나리가 나섰다.

“절박한 전략이지요.” 그녀가 말했다. “죽어가는 종족이 택할 마지막 도박이고요.”

살라다르와 빌알이 몸을 움직였다.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리가 말을 이었다,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크아레쉬인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나리는 나를 가리켰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온 건 공간 방랑자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속삭임이 오갔다. 그때 크리스온이 내 손을 잡았다. 감싼 손에서 정말 오랜만에 크리스온의 피부를 느낄 수 있었다. 불에 탄 듯 메마르고, 지나치게 연약한 피부였지만 한순간, 먼 과거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환영은 곧 빌알의 말에 깨졌다. 살라다르에게만 들으라고 한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직감했다. 나를 향한 것이었다.

“신성 모독이다.”

크리스온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놀란 숨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살라다르가 봉대로 감싼 손을 들어올렸다. “조용.”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머리가 복잡하군.” 그는 매듭단을 향해 돌아섰다. “해산. 마지막 결정을 하고 다시 부르지.”

그리하여, 매듭단은 흩어졌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그땐 몰랐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며칠이 지나도록 살라다르는 아무 기별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
제 삶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왔죠. 또 한동안은 여기
머물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 카이론이 대신 말을
끝맺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다. 형식일 뿐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일이 시급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과업이 얼마나 어렵고 방대한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장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비전 반응로에 쓰이지 않은 레시 리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 공간 방랑자여. 지금 모아라. 너무 늦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의심했다. 이건 현실일까? 내 안의 또 다른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레시 리본을 수집하며 들려온 속삭임은, 내가 이미 아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시 리본이 미래의 열쇠다. 크아레쉬인의 승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혼자서 행동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리를 찾았다. 그녀의 첩보망은 크아레쉬 전역에 퍼진 거미줄 같았다. 레시 리본을 모으려면 수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후, 나리는 불길한 소식을 안고 돌아왔다. 요원들이 임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레시 리본은 이미 원래의 보관처에서 사라졌고, 그걸 모은 이는 다름 아닌..... 살라다르였다. 하지만 나리는 내 흥분을 곧바로 가라앉혔다. 대사제가 다가올 일을 대비해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닐 거라고 말이다. 나리는 많은 소문을 들었다. 살라다르가 더는 자신을 대사제로 칭하지 않으며, 내일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였다.

살라다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리에 따르면, 그 계획에 매듭단의 자리는 없었다.

나는 카이베자를 불렀다. 크리스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려웠고, 연인을 가까이 두고 싶었다.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도시 전체에 종소리가 울렸다.시장의 종이었다. 우리는 공장 광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은 붐대로 몸을 감싼 시민으로 한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나리가 들었던 소식은 이미 퍼지고 있었고, 나는 또 한 번, 내 서약에 대한 과도한 몰두가 세상의 흐름에서 나를 고립시켰음을 저주했다.

종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시장 조합 회관의 발코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살라다르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곁에는 빌알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얼굴.

“영혼필경사다.” 카이베자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마침내 쥐구멍에서 기어

나왔군.” 사실이였다. 방벽이 세워진 이래, 시련 계파 유목민들은 도시국가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지만, 크리스조차 영혼필경사를 수개월째 본 적이 없었다.

살라다르는 팔을 벌렸고, 군중은 곧바로 조용해졌다.

“크아레쉬의 미래는 지금, 벼랑 끝에 놓여 있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긴 싸움을 거쳐 그대들을 지켜냈고 그대들에게 합당한 미래를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만물의 포식자는 끝없는 고통이며, 우리의 보호 수단은 유지될수록 건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고 있다.”

그 순간이 왔다. 머릿속의 목소리, 나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시금 희망이 피어올랐다. 살라다르는 우리가 제안한 대로 하고 있었다. 이제 민중도 다가오는 현실을 알아야 했다. 수년간의 변화와 고통 끝에 이제야 진짜 시련이 닥친 것이었다.

“곧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살라다르가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온다. 지난 수년 동안 그대들은 서약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고 예언자 평의회는 그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크아레쉬인의 강인함은 꺾이지 않았다. 몸이 시들고,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이제 우리는 가장 거대한 시험 앞에 서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분열을 버리고, 다통을 잊어야 한다. 우리에겐 인내력이 있다. 우리에겐 결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새로운 서약을 맺었음을 선언한다. 나는 더 이상 그대들의 대사제가 아니다.....”

“나는 그대들의 대왕이다.”

내 옆의 동료들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다. 나 역시 살라다르의 말뜻은 이해했지만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왕을 칭하라니. 그런 전략은 상상조차 못 했다.

“그리고 대왕으로서 그대들에게 전해야 할 진실이 있다.” 살라다르는 고개를 들어, 머리 위를 덮은 분홍색 반구를 바라보았다. 그 너머엔 끓어오르는 공허의 어둠이 있었다. “이 방벽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 우리는 이 방벽 아래에 갇혔고, 쇠락은 우리를 쫓먹고 있다.” 그는 발코니 끝으로 걸어 나와 백성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이 쇠락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안에 이 운명을 설계하고 조종한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와중에도, 크아레쉬의 멸망을 꾀한 자들이 있었다.”

크리손의 손이 내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내 연구를, 우리가 쌓아온

안배를 떠올렸다. 세계를 위해, 크아레쉬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그리고 살라다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 없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자가, 발코니에서 봉대를 칭칭 감은 손을 뻗었다.

나를 향해 샷대질하고 있었다.

“저기 서 있는 자가 공간 방랑자다.” 그가 말했다. “공허 마술사. 대역죄인! 그리고 저기 있는 이들은 그 동조자들이며, 이 세계를 공허 군주에게 바치려는 음모의 주동자들이다. 이들은 우리를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암약했고, 크아레쉬를 파멸로 이끈 자들이다. 저들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저들이 우리를 속였다. 쇠락은 바로 저들의 설계다. 저들은 신성을 모독했고, 우리 모두를 배신했다!”

그때 크리스온이 내 손을 끌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고, 혼란과 공포 속에서 광장 전체가 우리를 향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걸 보았다.

“잡아라!” 영혼필경사의 목소리였다. 영혼필경사의 말은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도망치게 두지 마라!”

그리고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을 뒤덮은 비전 방벽이 지평선에서 지평선으로 켜 갈라졌다. 백 번의 천둥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말이다. 군중은 웅크리고, 팔을 들어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타자베쉬를 보호하던 빛나는 분홍빛 흐름이, 마력으로 엮인 게 아니라 틴갈라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되는 양, 거둬 쪼개지는 모습을 모두가 말 없는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다.

모두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영혼필경사와 살라다르만은 예외였다. 군중의 공포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일행을 향한 무시무시한 분노로 바뀌는 그때, 나는 조합 회관의 발코니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엔 그들이 있었다. 진짜 반역자들. 진짜 음모를 꾸민 자들이다. 그 둘은 서로에게 바짝 다가앉아 속삭이고 있었다. 그 얼굴에 공포라는 감정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방벽은 산산이 갈라지며 서서히 사라져갔고, 그 너머로는 공허 특유의 소름끼치는 보랏빛 하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군중의 시선은 다시, 대왕이 지목한 자들, 바로 우리에게로 향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리와 카이베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전투 실력은 눈부셨고, 우리는 포위당했지만 상대는 훈련받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
제 삶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왔죠. 또 한동안은 여기
머물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 카이론이 대신 말을
끝맺었다.

시민이었다. 두 친구는 순식간에 폭도들을 밀어내 주었고, 우리 넷은 무사히 광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리가 선두에 섰다. 도시에 숨겨진 길과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도망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다.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고, 나는 오직 한 가지..... 크리스의 손을 놓지 않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하지만 도시 전체가 적이 되었다. 모든 골목, 모든 거리마다 분노한 시민들이 나타났다. 어떤 이는 무장을 하고 있었고, 대왕의 선언은 도시 전역으로 퍼졌으며, 예언자 평의회는 그 선언을 반향처럼 되풀이하고 있었다.

달리면서 나는 곧 깨달았다. 내가 도주를 느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두운 모퉁이에 잠시 숨었고, 그곳에서 나는 계획을 설명했다. 크리스는 반드시 안전해야 했다. 카이베자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왕에게 배신당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설령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레시 리본을 이용해 크아레쉬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몰랐다. 그 임무에서 나리는 나와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는 빠르게 이별 인사를 나눴고, 안전해지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나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카이베자와 크리스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달렸다. 도시가 폭동에 휩싸이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공허가 뒤따르며 요동치는 그 속에서 한때 내 안에 자리한 희망도 우리 머리 위를 지켜주었던 방벽처럼 산산이 조각났다.



텔로그러스 균열의 높은 고원 위. 알레리아 윈드러너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래서?”

공간 방랑자가 앞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되돌아왔다.

“궁금한 거라도 있나?”

“한두 개가 아니지. 계속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공간 방랑자는 잠시 멈췄다. “이야기할 게 그리 많진 않다. 나리와 나는 결국 임무를 해냈다.”

“결국?” 알레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그 이상은 알려줘야지!”

“정말 그래야 하나?” 공간 방랑자가 되물었다. “레시 리본이 우릴 구했다. 우리 종족은 마력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변환됐지. 디멘시우스는 다가왔고, 크아레쉬는

파괴됐다. 그건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어떤 식으로든 말이지.”

알레리아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럼 크리스손은? 애인은 어떻게 됐는데? 대왕이 당신을 배신한 그다음엔? 지금 말하는 걸 보니, 당신에겐 그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들려.”

“많은 일이 있었다.” 공간 방랑자가 말했다. “많은 이가 많은 일을 겪었지. 크리스손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리와 카이베자에 대해선..... 살라다르와 영혼필경사에 대해서도.....”

공간 방랑자가 말끝을 흐렸다. 알레리아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손에 쥔 활의 손잡이를 불안하게 쥐었다 놓았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지.” 마침내 공간 방랑자가 말했다. “크아레쉬인은 살아남았다. 적어도, 일부는.”

알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남았지만 당신은 동족을 등졌잖아. 고립을 자처했지. 왜? 참회하고 싶어서?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저들은 지금도 당신이 필요해. 그때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부분에서.....” 공간 방랑자가 말했다. “활잡이의 조준이 크게 빗나간 거다.”

알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역사 강의, 생각보다 쓸모없네. 균형을 잡아주겠다는 말이 실은 주의를 돌리려는 수법이었던 거야?”

“널 무너뜨리는 건 네 연결고리들이다, 알레리아. 널 짓무르는 무게를 내려놓아라. 네 소중한 사람들을. 그게 네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내 소중한 사람들? 당신이 크리스손에게 그랬듯이? 카이베자에게 그랬듯이?”

공간 방랑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이미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교훈 자체는 크아레쉬의 이야기에 있지 않다. 비록 네가 요구하긴 했지만. 진짜는 *크리*손의 이야기였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 어떤 길은 갈라지기 위해 존재하며, 어떤 운명은 서로 얹히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미래는 존재하되, 함께할 수는 없는 미래도 있다는 것을. 진실을 찾고 싶다면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혈육,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균형인지.”

알레리아는 공간 방랑자를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풀어내려 애썼다. 그 안에는 분명 지혜가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저기!”

알레리아가 몸을 돌렸다. 고원에 있는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공허의 명령을 찾아낸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허의 명령이 *일행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 존재는 머리 위로 우뚝 솟아난, 살아 있는 회오리였다. 공허 마력으로 이루어진 폭풍처럼 소용돌이쳤고, 갑옷 같은 어깨에서는 자줏빛 연기 같은 어둠이 피어올랐으며, 그 어깨에서는 찢겨진 칼날 같은 여섯 개의 날개가 돌아 있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 얼굴은 무거운 철가면에 가려져 있었다.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들쭉날쭉한 이빨이 가득한 커다란 입 하나뿐이었다. 그 끔찍한 형체를 따라 마력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저주받은 서리가 덮인 듯한 그 빛은 알레리아의 시야에 점이 아른거리게 했다. 알레리아는 눈을 깜빡이며 시야를 정리했다. 전투 자세를 갖추자 심장이 가슴에서, 귓전에 요동쳤다.....

아니. 그 소리는 그녀의 공포도, 혼란도 아니었다. *목소리였다*. 무한한 뒤틀린 황천의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목소리는 알레리아를 끌어당겼다. 이질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했다.

알레리아는 그 괴물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뒤에 선 공간 방랑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가만히 떠 있었고, 시선은 망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알레리아가 지켜보는 사이, 그는 망령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동작은 평화로웠고,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었다.

공간 방랑자는 이 망령에 대해 알레리아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만난 것들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본질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존재가 텔로그리스 군열에 있다는 걸 알았는지, *왜* 이 존재를 처치해야 하지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알레리아의 머릿속에서는 그 소리가 마치 여인의 음성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온 것뿐일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공간 방랑자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해서* 이 존재의 위치를 알아낸 걸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사라졌고 머릿속을 채우는 정적이, 종처럼 맑게 울렸다. 알레리아는 공간 방랑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펼친 손을 굳세게 말아쥐는 것을 보았다.

“지금이다. *지금*을 노려라.”

알레리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활시위를 강하게 뒤로 당겼다. 시위가 아랫입술을 파고드는 듯했고, 손은 얼굴의 피부를 뒤로 당겨 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는 화살촉을 따라 시선을 맞췄다. 망령의 심장을 겨냥했다.

하지만 시위를 놓지 않았다.

“알레리아, 지금이다. 알아차리기 전에 쏘라.”

알레리아는 활을 내렸다. “해치우기 전에 이 존재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

또 하나의 강의, 또 다른 수수께끼 같은 교훈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신 공간 방랑자는 으르렁이며 앞으로 날아갔고, 알레리아를 땅바닥에 밀쳐내며 공격을 시작했다. 알레리아는 흠바닥을 굴렀고, 그 와중에 공허의 망령이 회전하며 형태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안에서 어둠의 힘이 불어나고 있었고, 그 시선은 오직 다가오는 적, 공간 방랑자에게 향해 있었다. 망령은 순식간에 크기가 두 배가 되었고, 앞에 선 공간 방랑자를 압도하는 거구가 되었다.

알레리아는 일어섰다. 짧게 한숨을 내쉬 뒤, 이를 악물고 조준했다. 그리고 화살을 쏘다.

전투는 짧지만 격렬했다. 그리고 곧, 알레리아와 공간 방랑자는 다시 단둘이 남았다. 망령의 공허 마력은 색색의 연기처럼 증발하며 뒤틀린 황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존재의 잔해로 남은 건 하나. 공허 마력이 맥동하는 심장이 공중에 떠 있었다.

알레리아는 활을 등에 걸고 심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공허가 손을 당기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느껴졌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예전에도 해본 일이었다. 공간 방랑자에게 배웠으니까.

“멈춰라.”

알레리아는 손을 거뒀다. “난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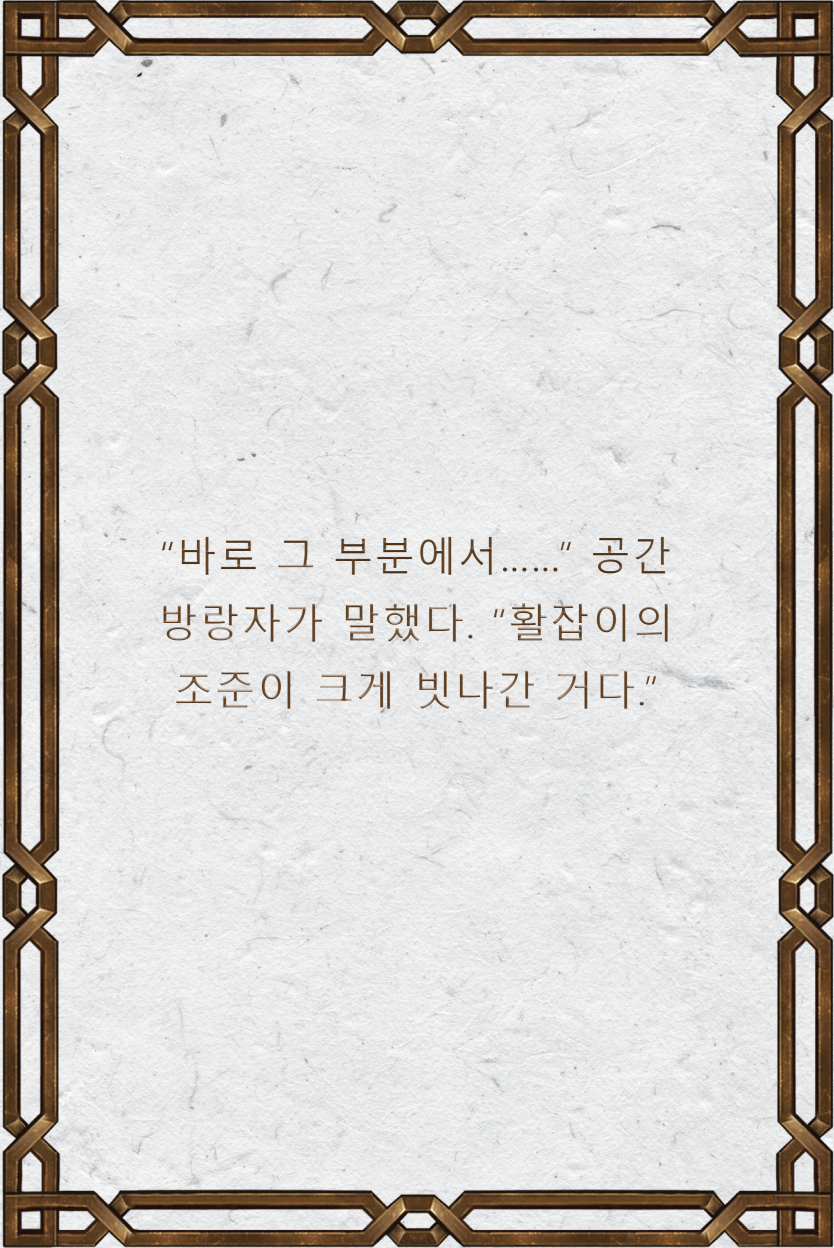
“말했잖나. 이건 내 것이다.” 공간 방랑자는 앞으로 흘러가듯 움직였고, 알레리아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

“이 존재는.....” 알레리아가 속삭였다. “이 공허의 망령은.....”

“말해라.”

알레리아는 다시 손을 뻗어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 심장이 불쾌하게 진동했다. 공허의 찌릿거리는 떨림이 보이지 않는 채로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쩌면 자신의 목소리일지도. 어쩌면 공허의 메아리일지도.



“바로 그 부분에서.....” 공간
방랑자가 말했다. “활잡이의
조준이 크게 빗나간 거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잔향일지도.

“이 존재가 예전엔 누구였는지, 알고 있어?”

공간 방랑자의 손이 다시금 주먹으로 굳어졌다.

“그건 **내** 것이라고 했을 텐데.”

“알고 있어.” 알레리아가 말했다. “처음부터 그랬지.”

공간 방랑자는 말이 없었다.

“당신은 틀렸어, 공간 방랑자.” 알레리아가 말했다. “내 힘은, **내** 균형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오는 거야. 그들은 내가 짓눌려 버리지 않도록 무게를 맞춰야 할 짐이 아니야. 정신을 맑게 하거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지도 않아. 내 힘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야.” 알레리아는 공허의 심장을 손에 든 채, 공간 방랑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도 예전에 그렇게 힘을 얻었잖아. 당신은 멸망해가는 세계에서 두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나는 세월을 넘어 그 사랑을 느꼈어. 당신은 가르침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교훈을 잊은 건 **당신**이야. 그래, 미래는 많은 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게도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어. 당신이 그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길이야.”

알레리아는 손을 폈다. 공허의 심장이 공중에 떠올랐다. 상상조차 어려운 보랏빛 후광을 두른 채, 천천히 공간 방랑자 쪽으로 떠밀리듯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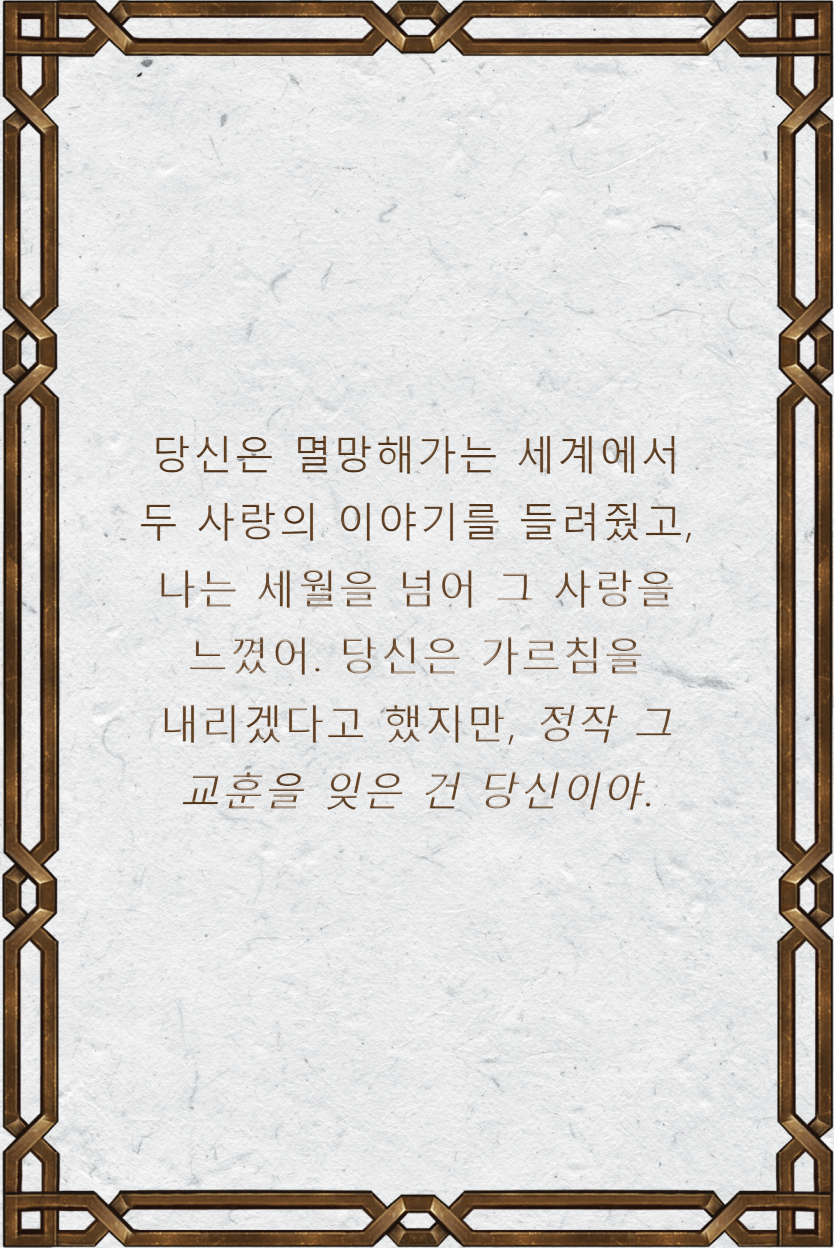
“아니면 당신이 외면했을지도 모르지.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발뒤꿈치를 돌렸다. “그만 달라란으로 돌아가겠어. 카드가가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거든.” 알레리아는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번엔 **내가** 준 교훈을 **당신**이 좀 생각해 봐.”

알레리아는 황량한 고원을 건너 멀어져갔다. 그 머리 위엔 공허가 번뜩였다. 공간 방랑자는 혼자 남았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과거와 함께. 그의 눈앞에, 공허의 심장이 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 마침내 공간 방랑자는 손을 뻗어 공허의 심장을 집어들었다. 단 한 번 숨을 고르고는 그 심장을 삼켰다. 그리고 심장은 사라졌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다른 시절, 그가 품었던 하나의 사랑이었다.



당신은 멸망해가는 세계에서
두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나는 세월을 넘어 그 사랑을
느꼈어. 당신은 가르침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교훈을 잊은 건 당신이야.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Master of Evil* 및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Big Finish 및 BBC Audio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